제6차 유네스코 청년포럼

청년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사회적 대화

○ 일　　시: 2009년 5월 18일(월) 13:00 - 18:00

○ 장　　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행사일정 안내

12:30 - 13:00 등 록
13:00 - 13:10 개회사: 전택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13:10 - 13:20 축 사: 임해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영희 (민주당 국회의원)

1부. 한국사회에서 청년으로 살아가기

13:20 - 13:50 기조강연: 한국사회에서 청년으로 살아가기
(강대근, 前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13:50 - 15:20 주제발표
-발표1 : 청년의 '행복한 취업'을 위해
(최영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노동연계연구실 실장)
-발표2 : 한일 청년문제의 새로운 자각과 대처
(김종휘, 하자센터 부센터장 / 노리단 단장)
-발표3 : 위기의 시대, 실종된 청년성의 새로운 모색
(엄기호,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발표4 :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사례
(한지섭, 인디고서원 활동가)

15:20 - 15:40 휴식 및 영상 관람 (영상제작: 희망청)

2부. 청년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사회적 대화

15:40 - 16:00 공모결과 발표
-한국 청년 새 이름 찾기
-한국 청년 5대 의제

16:00 - 17:50 원탁토론: 청년의 제자리 찾기
-사회: 이선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년팀장)
-토론: 김종휘 (하자센터 부센터장 / 노리단 단장)
(가나다순) 김현진 (청년인턴)
박해선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
엄기호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유병선 (경향신문 논설위원)

정일용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인재정책관)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최승아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란어과 재학생)
한지섭　(인디고서원 활동가)

17:50 - 18:00　폐회

목차

Ⅰ. 개회사

전택수(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1

Ⅱ. 기조강연

한국사회에서 청년으로 살아가기

강대근(前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3

Ⅲ. 주제발표

1. 청년의 '행복한 취업'을 위해

최영섭(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노동연계연구실 실장).....12

2. 한일 청년문제의 새로운 자각과 대처

김종휘(하자센터 부센터장 / 노리단 단장).....25

3. 위기의 시대, 실종된 청년성의 새로운 모색

엄기호(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38

4.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사례

한지섭(인디고서원 활동가).....51

Ⅳ. 참고자료

1. 청년이 말하는 '2009 한국청년 의제'.....59

2. 제6차 유네스코 청년포럼 준비회의록.....68

Ⅰ. 개회사

존경하는 임해규 의원님, 최영희 의원님,
강대근 전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원장님,
청소년 및 청년단체·기관의 대표와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본 포럼의 주인공인 청년 여러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준비한 '제6차 유네스코 청년포럼'에 귀한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의 한복판에서 위기로 몰려가는 청년들의 문제를 사회 각 분야의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경제위기와 맞물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청년의 실업문제, 그리고 이와 더불어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이제 청년들만이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청년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 실업, 빈곤, 사회적 차별, 세대 갈등, 범죄 등과 같이 청년이 당면한 문제는 어느 한 분야나 한 측면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전방위적 문제입니다. 청년의 제 문제는 세대와 분야를 뛰어넘는 사회적 소통과 공동체적 연대를 통해서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며, 바로 이것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오늘 '사회적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이유입니다.

이번 포럼은 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 내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통합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통합'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추구해온 덕목입니다. 이는 경제발전 및 환경보존과 함께 유엔의 중점 사업인 '지속가능발전'을 구성하는 세 영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년들 스스로가 각자의 잠재력과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 분야에 능동적인 자세로 참여함으로써 사회가 청년들에게 지속가능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두는 청년들의 창의력 제고와 직결된다고 하겠으므로, 오늘 이 자리는 창의력 제고를 위한 청년들의 향후 관심 및 활동 방향에 관한 토론의 자리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청년들이 더 이상 '미래'의 주역이 아닌 '현재'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주길 바랍니다. 대화의 파트너인 우리 기성세대들도 보다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한나절동안 진행되는 행사이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청년과 사회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한다면, '유네스코 청년포럼'은 우리 사회 곳곳에 이해와 신뢰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소통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진심어린 격려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6차 유네스코 청년포럼'이 우리의 청년들에게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진솔한 토론장으로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 5월 18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전 택 수

Ⅱ. 기조강연

한국사회에서 청년으로 살아가기

- 청년의 부활 -

강대근
(前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의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心臟)은 거선(巨船)의 기관(汽罐)과 같은 힘이 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動力)은 바로 이것이다. 이성(理性)은 투명(透明)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智慧)는 날카로우나 갑 속에 든 칼이다. 청춘의 끓는 피가 아니더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얼음에 싸인 만물은 죽음이 있을 뿐이다.
>
> - 민태원의 청춘예찬에서[1)]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최하는 청년포럼에 기조강연을 위하여 참가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인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근무하는 동안 많은 회의에 기조발표자를 초청하였는데 오늘은 초대를 받은 경우라서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초대에 감사드리고, '청년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인에게 주어진 주제가 '한국사회에서 청년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작년에 환갑을 맞아 유네스코와 맺은 40년의 기억을 뒤로하고 '백수의 향연'[2)]을 꿈꾸고 있는 사람에게 '청년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이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오늘을 살고 있는 청년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이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포럼의 프로그램은 원탁토론에서 청년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지만 기성세대나 전문가의 이야기에 청년의 "말 걸기"나 '시비 걸기' 정도로는 오늘 한국의 청년들의 삶이 너무도 팍팍하기 때문입니다.

본 논의의 머리에 인용한 민태원의 청춘예찬은 본인의 고교시절 국어교과서에 실린

1) 여기 인용한 민태원의 청춘예찬은 장하늘 편 '소리 내어 읽고 싶은 우리문장(다산초당,2005)'에서 가져 옴.

2) 고미숙, 청년들이여 '백수의 향연'을 읽어라, http://weekly.hankooki.com. 그는 열하일기와 임꺽정 읽기를 권한다. 10대엔 대학에 목숨을 걸고 대학가선 취업에 올인하는, 하지만 빈손으로 세상에 나오는 청년들에게 일기를 권하고 있다.

것으로 정비석의 산정무한과 함께 밤새워 외우다가 '통금'의 거리를 내달리게 했던 글입니다. 지금은 청춘이란 단어를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 보는' 청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늙어버린 것일까요? '한국사회에서 청년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는 예찬할 수 없는 청춘의 고뇌를 내포합니다. 그것은 오늘의 한국사회가 경험하는 청년성의 부재(不在)와 청년으로 '살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을 살려내어 다시 춤추게 할 수 있는 '굿거리'장단이나 청년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한국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여기'에 살고 있는 청년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위하여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 땅에서 60년을 살면서 60년대와 70년대에 청년시절을 보낸 경험과 유네스코 활동을 통해서 만나 온 청년들의 방황과 좌절 혹은 저항과 도전의 삶을 곁에서 지켜 본 입장에서 "청년아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찌 살고 있는가?"하고 안부를 묻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청년에 대한 생각이나 청년을 다루는 입장이나 청년과 함께하는 자세는 민태원의 청춘예찬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도 그들의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을 부러워하고 '얼음 같이 투명한 이성'과 '갑속에 든 칼같이 날카로운 지혜'를 찬양하면서 '사랑과 미움'의 시선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논의가 다행히 포럼의 주제와 관련하여 차라리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위하여 청년 살려내기'를 위한 화두를 던지는 것이 될 수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청년포럼이 열리고 있는 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5월은 5.16과 5.18과 더불어 1년 전의 촛불항쟁의 기억으로 새로운 역사성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한국 청년의 삶을 이야기해야 하는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보여준 청년의 절규와 외침에 대한 회상과 청년의 역사성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죽어 잠든 청년을 깨워 보는 일도 청년의 거듭 태어남을 위하여 필요해 보입니다. 5월이 되면 라일락이 다시 피듯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청년에 대한 어떤 논의도 한국이 경험한 근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굽이치는 청년의 저항과 역동적 참여가 가져 온 성과들과 고귀한 희생을 도외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늘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한 종속변수가 아니라 독립변수였으며 역사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한국의 근대사 속에서 청년은 민족의 독립과 민주주의 쟁취를 위하여 일제와 독재정권에 생명을 걸고 저항하였습니다. 그들은 청년임을 증명함에 부끄러움이 없었고 역사 속에서 청년의 역할을 몸으로 실천함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변화에 예민했고 불의(不義)와 부정(不正) 앞에서 생명을 거는 용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최루

가스가 자욱한 거리에서 젊음을 불태웠습니다. 1960년 4.19 당시 한 여자 중학생의 유서를 읽어 봅니다.

> "지금 저의 모든 친구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를 흘립니다.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길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모든 학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것입니다.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 합니다.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온 겨레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뻐해 주세요. 이미 저의 마음은 거리에 나가 있습니다."
> (서울 한성여중 2년생 진영숙이 삯바느질로 학비를 대던 어머니에게 남긴 유서, 1960년 4월 30일자 경향신문)

청년은 단순히 청소년과 성인 사이의 과도기적 존재가 아닙니다. 청년이란 단순히 한 개인의 인생주기에서 지나게 되는 단계에 그치지 않고 독특한 사회적 범주로서 구분되어야 합니다.[3] 그들은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청소년과 다르며 기존의 가치와 질서에 길들어져 있는 기성세대와 다릅니다. 그들은 오늘을 사는 내일의 희망이며 꿈입니다. 청년은 "가출'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일탈입니다. 청년은 적당히 '불온'한 창조적인 역동입니다. 청년은 꿈과 이상으로 자유로운 상상입니다. 그래서 방황과 좌절도 저항과 도전도 모두 그들의 삶을 기름지게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는 창조적 일탈은 청년을 청년답게 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도 차라리 아름답습니다. 청년은 인간과 사회의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미래를 고스란히 잉태합니다. 따라서 청년들로 하여금 부정(否定)할 수 있는 권리와 실패할 수 있는 용기를 통하여 인류의 이상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태원은 이렇게 청춘을 예찬합니다.

> "이상! 빛나는 귀중한 이상, 이것은 청춘이 누리는 바 특권이다. 그들은 순진(純眞)한 지라 감동(感動)하기 쉽고, 그들은 점염(點染)이 적은지라 죄악에 병들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앞이 긴지라 착목(着目)하는 곳이 원대(遠大)하고, 그들은 이상의 보배를 능히 품으며, 그들의 이상은 아름답고 소담스러운 열매를 맺어, 우리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민태원은 이상은 청년이 누리는 특권이라 했습니다. 이상은 꿈과 희망입니다. 세계는 1960년대에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위한 변혁을 향하는 '청년의 출현'을 경험했습니다. '불가능한 것'[4]을 요구하던 68운동의 목소리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 불합리한 시험제도와 고용제도, 권위주의 등의 혁파를 통해 줄 세우지 않는 사회, 차별이 없는 사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인권, 평등, 박애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꿈꾸는 청년의

---

3) 리차드 플랙스, 변화의 주역으로서의 청년, 이중한 편 청년문화론, 현암사, 서울, 1974, pp.85-130

4) 도널드 프레이저, 안효상 옮김, 1968년의 목소리-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 박종철출판사, 서울, 2002

이상을 담고 있었습니다.[5] 비록 혁명이 실패하고 기성세대가 그들을 '문제 세대'로 낙인찍었지만 세계는 청년이 제기하는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이며 세계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1960년대에 주장하고 이루고자 했던 이상은 오늘도 미완의 꿈으로 적실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 학생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독립국들의 국가건설 과정에서 일제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모범적인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동을 통한 참여의 전형을 보여 주었습니다. 특히 7,80년대의 군사독재에 항거한 청년 학생들의 정의감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자주적인 국가 건설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저임금 노동현장의 근면한 노동자들의 힘으로 우리는 세계 10위원의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청년들은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청년들은 상실과 소외로부터 오는 관계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은 나이가 젊다고 해서 청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다운 삶을 영위할 때 청년이 됩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청년다운 청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청년을 죽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청년다운 청년은 없고 청년의 사회적 참여의 벽은 높아만 가고 청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없습니다. 그들은 청소년에 흡수되거나 '1318' 혹은 중딩, 고딩, '2030'이나 '88만원 세대' 등으로 불려집니다. 비록 사회적 문제에 관한 그들 간의 토론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대부분 인터넷의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짐으로 현실 속의 사회적 공간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자유의 아이들'[6]이 보여주는 '전복적 에너지와 역설'에도 불구하고 자살충동과 죽음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7] 인터넷에는 동반자살을 제안하는 사이트가 회원을 모집하고 운영자의 인터뷰[8]가 신문에 실리기도 합니다.

오늘의 청년 세대는 '노동 없는 자본주의'[9]가 가져 온 '풍요속의 빈곤' 과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모순 속에서 '청년실업'과 '청년상실'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88 올림픽을 경험하고 월드컵에서 붉은 악마가 되어 본 사람들은 스포츠에

---

5) 잉그리트 길혀-홀타이, 정대성 옮김, 68운동, 들녘,2006

6) 울리히 벡, 정일준 옮김,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 새물결, 서울, 2000, pp.21-32

7) 청소년에 관한 통계청의 발표는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20대 청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었고 연간 1557명이 자살하였다. 10대들의 사망원인에서도 남자는 2위 여자는 1위였다. 이러한 통계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며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한편으로 '중독' 되어 있거나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8) 중앙일보, 2009년 5월 4일.한 포털 사이트에 'suicide04'를 개설 해 운영한 정모(21)씨와의 인터뷰

9) 울리히 벡, 정일준 옮김, 같은 책, p.123

열광하면서 새로운 청년들의 출현과 그들의 성공을 만나고 있습니다.

박세리. LPGA에서 우승하여 IMF의 시름을 달래 주었을 때 그의 나이 21세
박태환. 2007년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의 나이 18세
김연아. 2009년 세계피규어선수권에서 207.71점으로 우승했을 때 그의 나이 19세

그들도 아름다운 청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의 성취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까? 그들은 청년이 가능성의 주체로서 무엇을 이룰 수 있고 우리 모두를 얼마나 기쁘게 할 수 있는가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골프선수가 되거나 수영선수가 되거나 피규어 선수가 되는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대단한 엄마'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엄마의 손에 끌려 골프장으로 수영장으로 아이스 링크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는 청년상은 오늘 한국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과 공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는 '청년으로 살아가기'라는 다소 절박한 주제에 접근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빠는 어려운 시절에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힘들게 일하는데 넌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외고는커녕 일반 고등학교도 힘들겠다. 일류대학 3분의 1이 특목고 출신이라는데 성공하려면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나 잘 하세요. 만날 일찍 들어온다 거짓말하고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오면서. 다른 친구 아빠들은 수행 평가도 많이 도와준다던데 아빠는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는 알기나 해요? 아빠, 미워요."

(중앙일보, 아빠도 AS되나요?, 2009. 4.29)

그들은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성적을 올리는 일도 친구를 사귀는 일도 여가를 즐기는 일도 심지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옷을 입는 일도 모두 고민거리 입니다. 우리의 교육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학교는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한 전인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아니라 오로지 시험과 경쟁을 통하여 줄을 세워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오죽하면 '입시 지옥'이라 부르겠습니까? 그들은 학교에서 주어진 정답을 앵무새처럼 외우고 '사랑의 매'를 맞으며 매일 무너지면서 한없이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신문이 체벌 때문에 자살한 청소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3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1일 오전 3시45분쯤 광주

> 남구 한 놀이터 정자에서 A(17·고1)군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8시쯤 자율학습 2시간을 빠졌다는 이유로 친구 1명과 함께 B(28)교사로부터 지시봉으로 발바닥을 110대가량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
> (한국일보 2009 5.4)

청소년들이 매일 자살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유서를 남긴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지난 해 촛불시위를 불러 온 여자 중고등학생(촛불소녀)들이 든 피켓에는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 '꿈꾸며 살자'였습니다. 얼마나 소박한 외침입니까? 그들은 '잠자지 못하였음으로 꿈꾸지 못하였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였음'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소박한 외침도 사회는 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청소년기는 '사랑의 매' 앞에서 침묵을 배우며 '자발적 순종'을 내면화 합니다. 그런 몸과 마음으로 대학에 갑니다. 대학 진학률이 80% 이상이라면 한국의 청년은 모두 대학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청년 문제는 한국의 대학이 갖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대학은 어떤 가요? 대학은 '입시지옥'을 견디어 내고 갈 만큼 아름다운 곳이 못됩니다.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민태원이 예찬했던 청춘은 어디로 갔을까요? 박홍규는 그의 칼럼에서 이렇게 그들을 묘사합니다.

> "스스로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자유로운 삶에 반드시 필요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진선미를 자유롭게 탐구하는 시도를 단 한 번이라도 감행해보지도 못하고, 오로지 규격화된 교과서나 영어교재의 암기를 진리라고 착각하고, 부모나 교사가 부여한 기성 규범에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만이 윤리라고 착각하며, 대중매체가 부추기는 얼짱이나 몸짱 따위 허상을 유일한 아름다움으로 착각하는 이 자유없는, 청춘 아닌 청춘"[10]

그들에게 자유는 사치스런 것입니다. '대단한 엄마'들은 자식의 수강신청에 간여하고 낮은 학점에 항의하기 위하여 교수를 찾고, 반면에 자식들은 졸업을 회피하기 위하여 B학점을 F점으로 내려 달라고 사정하기 위하여 교수를 찾습니다. 오늘 대학의 풍경입니다, '청춘이 자유롭기에 청춘인데도, 언제부턴가 그 청춘은 자유의 참맛을 모르고 대학에 들어서자마자 취업이라는 식권을 챙기는 노예가 되기에만 바빠졌다. 아니 그 전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부질없는 죽음의 공부에 노예처럼 휘몰린 탓에 자유라는 걸 알 수도 없는 청춘 아닌 청춘은 대학에 와서 더욱 철저한 노예'[11]가 되고 오로지 취업을 위하여 다시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실업자 100만 시대에 살면서 청년실업률 8.8%라는 통계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하여 휴학을 하거나 학점을 포기해야 합니다. 더하여 등록금

---

10) 박 홍규 칼럼, 대학, 자유, 청춘, 경향신문, 2008년 3월 26일

11) 박홍규의 같은 글

은 얼마나 비쌉니까? 1000만원을 넘어가는 빚 내지 않으면 등록금을 낼 수 없고 졸업 후에 취업할 수 없어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 대학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는 셈입니다.[12] 대학에서 청년은 끝없는 추락 끝에 타락합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가장 힘겨운 희생을 치르는 계층이 청소년과 여성이라 했지만 오늘 한국의 청년이 경험하는 교육적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은 '살아가기'라는 표현이 내포하는 어려운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너, 자소서는 다 썼어? 오늘 피의 금요일인데 1승 가능할까? 난 저질 스펙 때문에 진짜 고민이다. 취뽀나 들어가 봐야겠다"[13]

이 청년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일상입니다. '통역'이 필요합니다. '자소서, 스펙, 피의 금요일, 1승, 취뽀.' 구직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 봄직한 단어라고 합니다. 기업 서류 전형의 1단계인 자기소개서의 준말인 '자소서', 서류 전형에 필요한 자신의 'specification'을 뜻하는 '스펙' , 모든 기업의 서류전형, 면접 전형 발표가 가장 많은 매주 금요일 '피의 금요일'. 한 단계 통과할 때마다 올라가는 자신의 승률 '1승', 그리고 다음커뮤니케이션 최대 취업 카페인 '취업뽀개기'의 준말이자 취업 성공을 이루었다는 고유 명사 '취뽀'(고재열의 독설닷컴, 글 - 이지영). 요즈음은 '자소서'가 '자소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소설처럼 쓴 자기소개서를 말한답니다.

오늘 한국의 대학에 있는 청년의 근본 문제는 '등록금 인하와 취업보장'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무릎보호대'를 착용하고 삼보일배(三步一拜)에 나섭니다. 그리고 졸업 때가 되면 100장의 이력서와 한 장의 유서를 씁니다. 그들이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소통의 부재와 관계의 단절은 그들을 한없이 고독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교육은 고독을 즐기거나 견디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14]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하여 청년들이 추방의 명령을 받는다면 그들이 보여줄 탈주의 장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15] 걱정입니다. 지난 5월 2일 촛불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나온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 "애들이 바뀌었다. 확실히. 그래서 어른들에게 말하고 싶다. 조심해야 한다고. 이 애들, 크면 무슨 짓을 할 줄 모른다."[16]

---

12)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의 교육비와 수익률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에 670명이었던 대학생 신용불량자는 2008년에는 1만 118명으로 2년 만에 15배 늘었다(교과부, 국정감사 자료). 정부의 무대책이 학생들을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낙인찍어 '학자금 신용불량자 1만 명 시대'를 만들고 있다.(오마이뉴스)

13) 이지영, 어느 청년 구직자의 이중생활, 고재열 닷컴, 2008.11.18

14) 박찬국, 해체와 창조의 철학자, 니체, 동녘, 2001, p.206

15) 고병권, 추방과 탈주, 그린비, 서울, 2009

삶이 사람을 만듭니다. 청년이 경험하는 청년기의 삶은 고스란히 청년의 미래에 투영되고 사회의 미래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가'라는 소설을 쓴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물어야 합니까? 촛불을 든 아이에게 '초를 누가 사 주었냐?'고 물어서는 안됩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려야 하는지 묻지 말라'고 합니다.[17] 우리는 익숙한 것들에 대하여 혹은 참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식민과 전쟁, 빈곤 과 독재를 극복하고 이룩한 경제 발전과 민주화의 경험을 사회적 삶의 현장에서 일상화하면서 새로운 청년상을 들어내고 그들의 삶의 지속성을 위하여 새로운 청년에 관한 담론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청년이 보여 주는 삶을 통하여 무엇을 용인하고 용서할 수 있는지 가려내야 합니다. 청년을 살려내기 위하여 청년의 생명력과 역동성, 그리고 저항과 도전이야 말로 한 사회의 지속성을 담보함을 믿어야 합니다. 청년을 살리는 일은 '오래된 미래'를 담보하는 일이며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입니다.

오늘 세계가 직면하는 경제위기는 '또 다른 세계'를 향한 새로운 담론을 요구합니다. 무한경쟁 속에서 승자독식의 독점과 지배를 미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가 보여주는 허위와 가식의 언어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김열규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성찰을 위하여 그리고 새로운 청년의 탄생을 위하여 청년의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의 근대사가 기록하는 고귀한 청년의 죽음을 극복하고 성적표를 받아 들고 혹은 실업의 늪에서 학생들과 청년들이 경험하는 죽음의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어제의 죽음이 오늘의 삶에 의미를 갖는다면 진혼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것입니다. 4.19혁명 이후 한국의 반세기는 청년들에게 '타는 목마름에서 생명의 바다'[18]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청년답게 저 넓은 생명과 평화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8운동 당시 청년학생들은 '사랑을 해라, 전쟁을 하지 말고'(Make Love, Not War)'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자"고 외쳤습니다. 불가능한 것의 희구와 요구를 통하여 청년의 삶이 온전히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발전과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청년의 성찰적인 비판적 사고와 도전적인 창조적 상상력 속에서 잉태됩니다. 존 레넌의 <이매진>(Imagine)을 불러 봅시다. 그는 "국경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서로 죽이지도 않고 죽어야 할 일도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소유도 탐욕도 배고픔도 없는 세상, 사람들이 온 세상을 나누며 평

16) 강이현, "우리들 커서 무슨 사고칠지 몰라요! 무섭죠?" 프레시안, 2009.5.2

17) 움베르토 에코, 김운찬 옮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묻지 맙시다, 열린책들, 서울, 2003

18) 김지하, 타는 목마름에서 생명의 바다로, 동광출판사, 서울, 1991

화롭게 사는 것을 상상해 보라"고 노래하며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청년다움의 회복을 통하여 허위와 가식으로부터, 동조와 순응에 익숙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비로소 '살아가기'의 실마리가 풀릴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인가요? 상상력의 문제입니다.

혹시나 본인의 논의가 시대가 변한 줄도 모르고 '아이들'이 변한 줄도 모르고 '옛날의 금잔디'를 부르는 것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김광석은 그의 노래 <서른 즈음에>에서 '내뿜는 담배연기처럼 멀어져가는 나날'을 노래하면서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청춘은 점점 멀어져가고, 사랑도 그렇게 잊혀져가고,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는' 서른 즈음의 삶을 노래했습니다. 장기하라는 젊은 가수는 '싸구려 커피'를 마시며 '별일 없이 살고 있다'고 노래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싸구려 커피를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하여 불가능한 것을 향하여 돈키호테처럼 도전하는 청년을 살려내고 그러한 청년에게 아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이 많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강신철 외, 80년대학생운동사, 형성사, 1988
강준만, 입시전쟁잔혹사, 인물과사상사, 서울2009
고병권, 추방과 탈주, 그린비, 서울, 2009
김열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궁리, 서울, 2001
박찬국, 해체와 창조의 철학자, 니체, 동녘, 서울, 2001
사회와 철학 연구회 편, 촛불, 어떻게 볼 것인가, 울력, 2009
신영복, 나무야 나무야, 돌베개, 서울, 1996
이오덕, 아이들에게 배워야 한다, 도서출판 길, 서울, 2004
이중한 편, 청년문화론, 현암사, 서울, 1974
정해준, 청년운동의 대본, 한성출판사, 1949
한완상, 현대사회와 청년문화, 법문사, 서울, 1973
움베르토 에코, 김운찬 옮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묻지 맙시다, 열린책들, 2003
잉그리트 길혀-홀타이, 정대성 옮김, 68운동, 들녘,2006
울리히 벡, 정일준 옮김,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 새물결, 2000
한나 아렌트, 이진우 태정호 옮김,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96
N. Chomsky, MisEducation, Rowman & Littlefield, Lanham, 2000
UNESCO, Youth in the 1980s, The Unesco Press, Paris, 1981

Ⅲ. 주제발표

청년의 행복한 취업을 위하여

최영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노동연계연구실 실장)

1. 들어가는 말

○ 최근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층(15~29세)의 고용 사정 악화가 지속

- 특히 청년층 고용 문제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2004년 말 이후의 고용률 하락이 대단히 빠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 청년층의 고용률은 계절조정 계열을 기준으로 2004년 말 이후부터 계속 하락하여 2009년 1/4분기 현재 39.9%로 전년대비 2.1%P 감소
  · 계절조정치 기준으로는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기록적으로 낮은 고용률 수준에 근접(최저 1999년 1/4분기 39.5%)

- 취업자 숫자도 2009년 3월 3,863천명으로 전년대비 199천명 감소로 2008년 12월 이후 4개월째 4백만명 하회

[그림-2] 청년층과 전체 고용률 추이(계절조정치 기준)

(단위: %)

자료: 통계청, KOSIS DB, 경제활동인구조사.

○ 청년층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간 무수한 논의가 전개

- 청년층 취업 애로의 원인과 관련하여, 산업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양적·질적 인력 수급 불일치, 청년층의 요구와 기업의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눈높이 차이, 청년층의 원활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인프라의 미흡 등이 다양하게 지적

- 아울러 이와 관련된 정책들도 외환위기 이후 쏟아지기 시작, 청년실업 대책을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추진 중

○ 그러나 무수한 원인 진단과 정책 대안의 추진 속에서도 여전히 청년층 취업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 근본적으로 경제 전반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저하된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로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층의 구직난이 공존

- 더욱이 고졸자의 83.8%(2008)가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기업과 청년층의 눈높이 차이 문제도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고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

- 미래의 핵심 자산인 청년층에게 그들의 소질과 재능을 풍부하게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을 것임

- 이 글에서는 우선 기존의 청년층 고용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간단히 짚어 보고, 그간의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이슈들, 특히 청소년기의 진로 선택 교육 문제와, 취업 시점에서의 채용 구조 문제들을 다뤄보고자 함

- 물론 이러한 논의를 통해 청년층 고용 문제에 대한 획기적 해결 방안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나, 청년층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해법의 논의 차원에서 검토

2. 청년층 고용 문제의 원인과 대책 현황

○ 사실 청년층 고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것이 벌써 10여년을 넘어가는 상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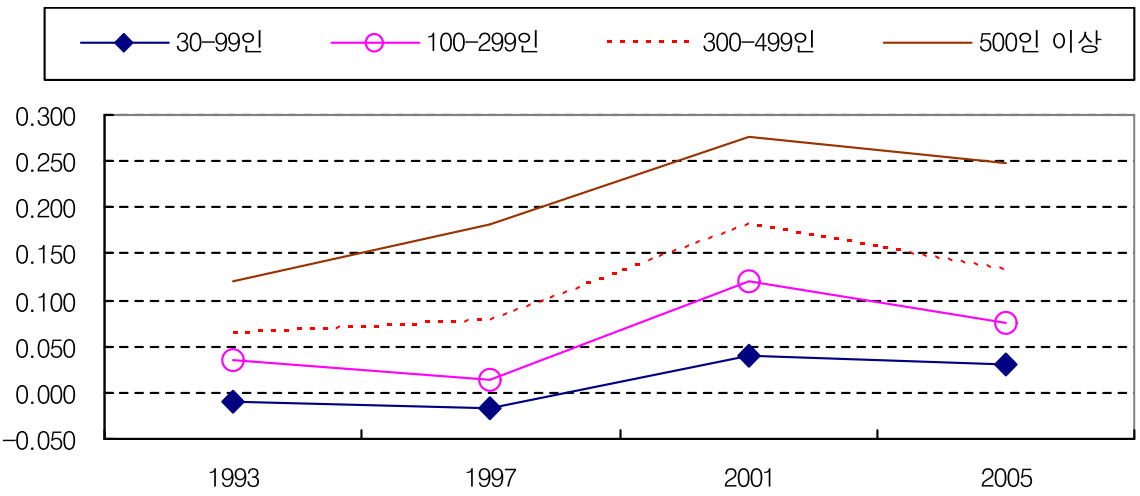
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들이 제출된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금재호 외(2007)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년층 고용 문제의 원인을 정리

- 수요측면의 원인
  · 경제성장 둔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업의 해외이전 등에 따른 고용흡수력 감소로 (괜찮은) 일자리 창출 규모의 하락과 주요 기업들이 신규졸업자의 채용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

※ 한편 중소기업에서는 인력 수요가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2000년대 들어 더 확대되는 경향
  · 아래 그림은 90년대 초(1993), 90년대 중반(1997), 2000년대 초(2001), 2000년대 중반(2005)의 사업체규모별 순임금격차를 표시
  · 그 결과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 특히 이러한 현상은 500인 이상에서 두드러지고 있음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순임금격차 추정계수 추이



주: 순임금격차는 성, 연령, 학력, 직종 등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격차를 의미, 근로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추정.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년도 원시자료.

- 공급측면의 원인
  · 고졸자의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대졸 청년인력의 공급이 급증하는 가운데, 학교교육이 노동시장 수요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 발생(대학 진학률 1990년 전체 33.2% 일반계 47.2% 전문계 8.3%, 2008년 전체 83.8% 일반계 87.9% 전문계 72.9%)

· 청년 취업자의 37.5%가 전공과 일자리의 내용이 '매우 불일치'한다고 하였으며, '매우 일치'한다는 응답은 19.3%에 불과(통계청, 2006)
· 구직자가 희망하는 임금과 실제 시장임금과의 격차가 상당한 상황으로, 고학력자 증가에 따라 기대임금(reservation wage)이 높아짐

- 인프라 측면에서의 원인
· 대다수 기업들에서 여전히 연공급이 중요한 임금결정 기제로 작동하는 임금경직성이 존재하여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잠식
· 경직적인 고용보호법제(EPL)가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을 과보호하고 반면 생산 유연성 확보를 위한 아웃소싱 등으로 하청·비정규 일자리가 양산되어 청년층의 취업 기피 야기
· 청년들의 올바른 진로설정을 도와줄 수 있는 노동시장 정보 및 고용지원서비스가 취약하며, 그 결과 눈높이 조절에 실패한 청년들로 인한 실업의 증가 현상이 발생

○ 한편 국민의 정부 이후 추진되어 온 청년 실업 대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금재호 외, 2007)

- 비전: 청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 목표: 청년취업 애로층의 감소와 취업 소요기간 단축
- 추진전략: ①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② 산업수요에 맞는 청년인력 양성
③ 청년층 취업지원 인프라 확대
- 추진과제:
① 수요측면: 근원적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유휴일자리 청년취업 지원, 해외취업 지원
② 공급측면: 직업진로지도 강화, 대학의 취업경쟁력 강화, 직업교육, 훈련체계 혁신
③ 인프라측면: 대학의 취업지원기능 강화, 직업 및 고용정보 생산, 보급 확대, YES 프로그램 도입, 청년실업대책의 성과 제고 등

- 따라서 청년층 고용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이미 추진 중, 그러나 이들 대책들에 대한 청년층의 접근성, 정책 상호간의 연관성, 실제 수요자의 독특한 요구에 부응하는 세밀한 정책 설계 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도 지적

○ 더욱이 청년층 고용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것이 청년층 중 유휴청년, 소위 'NEET'(Not in Education, Employement and Training) 계층의 문제

- 이들은 공식 실업자로 잡히지 않아 청년층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도록 하는 중요한 원인이지만, 명확한 구직활동 등을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집행에 애로를 초래

- 즉 명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수행할 경우 그 목적, 애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용이하나,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채 취업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예 취업 준비도 하지 않을 경우 정책 대상 및 정책 수요의 파악에서 애로가 존재

- 이들의 규모와 관련하여, 채창균 외(2008)는 2007년 현재 약 25-30만 수준으로 추정, 이는 (전체 인구의 2~3%)으로 동일 연령대의 실업자 수 30만명을 약간 밑도는 수준
  · 좁은 의미의 NEET를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이 "쉬었음"인 사람으로 정의, 단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 청년층의 경우와 달리 34세까지 확대
  · 2003~2007년의 기간 동안의 추이를 분석해 보면,NEET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같은 기간 동안 실업자 수가 감소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

- 이들의 특성과 관련하여, NEET는 실업자에 비해 보다 저학력, 저연령, 미혼일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의 노동시장 경험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추정 (채창균 외,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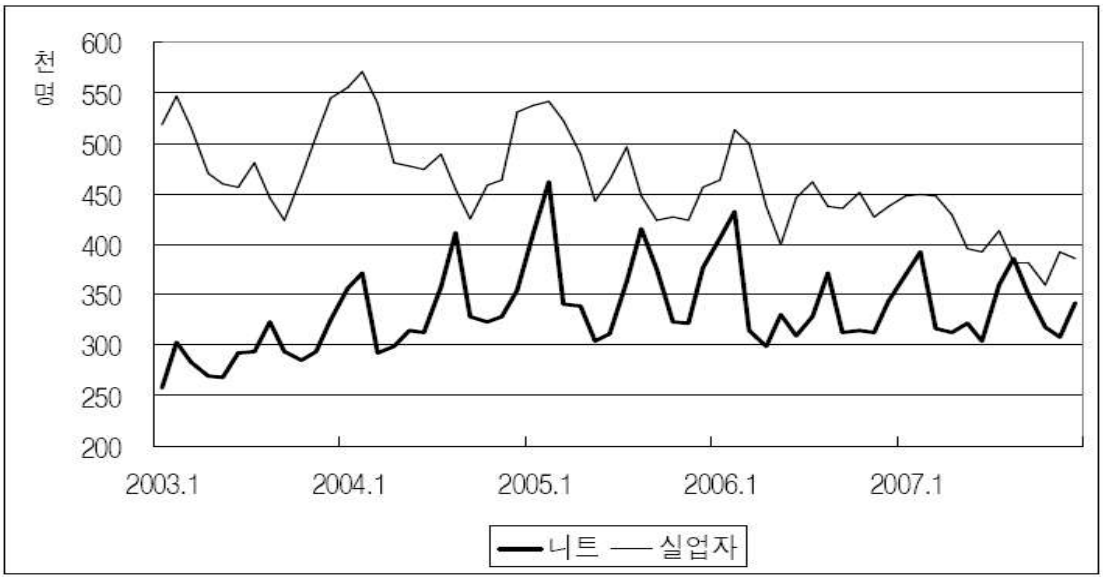
- 또한 NEET는 20대 초반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졸 미혼 남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든 과거든 가구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할수록 NEET 가능성이 높아짐

- 이러한 NEET의 존재는 이미 노동시장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채 재진입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을 시사

- 그러나 이들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청년층 중 누가 NEET에 해당하는지 구별해 내기 어렵고, 그리고 이들의 노동시장 재진입 시기 및 가능성을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그림 4] 연도별 NEET 추이 (34세까지 포함)

(단위: 천명)



자료: 채창균 외, 2008.

3. 청년층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두가지 추가 검토 사항

1) 청소년기의 적절한 진로교육 활성화

□ 현황

○ 현재 전반적으로 대학 서열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교육 풍토 하에서 청소년의 적성·흥미·능력 등을 고려한 생애설계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상황

- 한편, 학교에서 성적에 따른 획일적 '대학 입학' 목표는 학생의 장래 직업과 무관한 사교육비 투자로 불필요한 가계 부담만 가중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

- 또한 생애설계 준비의 부진은 대학 입학 이후에도 개인적·사회적 비효율성을 누적시키고, 대학 졸업 후 적성에 맞는 직업을 얻지 못하여 실업 위험도 증가

○ 전반적으로 청소년기의 진로 설계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는 미흡

- 학교 내에서의 진로 설계 지원 프로그램은 개인별 특성을 감안한 심층 상담이 이

뤄지지 않는 가운데 각각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상호 연관성을 갖지 못한 채 단편적으로 진행, 그 결과, 상급학교 진학이나 직업탐색에 실질적 기여가 미흡

· 진로검사에 대해 중학생 41.6%, 고교생 52.0%가 '도움 안됨'('08. 한국고용정보원)

· 직업생활체험 프로그램 참여율(중2~고3년)은 3.0~7.0%로 저조(한국청소년패널, '03~'07)

- 진로상담부장은 전체 학교 중 50% 가량만 배치되어 있으나 담당 교과목 수업 부담, 잦은 보직 변경으로 진로교육 전문성이 미흡하고, 전문상담교사는 전체 학교 중 21%에만 배치되어 있으며, 그나마 학교 폭력 대응이 주 업무로 진로교육은 부차적 업무로 다뤄짐

· 교원 양성 과정에서 진로교육 관련 전문성 개발 기회도 없으며, 임용 이후는 교과 중심 교육에 치중하고 진로교육을 잡무로 인식

○ 또한 진로교육을 위한 산학 연계 미흡으로 생생한 직업체험 기회도 제한

- 학교에서는 직업정보 책자·비디오·직업인 학교 강연 등 정보 위주·간접 전달 방식에 한정, 산업계의 직업체험 기회 제공 기피로 현장체험·현장탐방 등 학생의 직업체험 저조, 실제 운영 중인 직업현장체험 프로그램도 단순 견학 위주로 교육효과 미흡

· 직업현장체험 프로그램의 아쉬운 점: 짧은 직업체험 시간(28.0%), 지루함(24.6%), 작업장에서의 체험 활동(17.6%) 등('0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개선 방안

○ 향후 청소년기의 적절한 진로교육 활성화는 점수 위주의 대학 입시 관행의 변화와 맞물려 추진되는 것이 필요

- 특히 청소년기의 진로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어려서부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도록 지원하여 청년기의 소중한 시간들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 대학 입시 관행 변화와 연계하여 학교 단계 진로 교육을 대폭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

○ 구체적으로, 대학 입학사정관제와 연계된 '진로설계 포트폴리오' 시행 및 확대를 추진할 필요

- 현재 정부의 입학사정관제 확대 방침·KAIST의 무시험전형 확대 등으로 점수 위주의 학생선발 관행 변화 가능성 증대

- 그러나 진로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입학사정관이 지원 학생의 재능과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
  · 대학입학사정관제의 선발 분야: 자기추천, 지역인재선발, 글로벌 리더, 선·효행자, 잠재능력 우수자 등

- 따라서,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계기로, 학생의 생애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진로교육의 혁신 필요

- 이를 위해 개인의 적성·흥미·역할모델·생애설계·진로교육 활동·봉사활동·동아리활동·리더십 등을 초등학교 단계부터 종합 기록한 진로설계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 미국 오하이오주 Career Passport제, 영국 Progress-file, 일본 미래 포트폴리오(未來 ポートフォリオ) 등에서는 개인 진로계획, 진로활동 및 경험, 성취 결과를 종합 기록

- 또한 대학 입학사정관의 진로설계 포트폴리오 활용 유도를 위해 매뉴얼 개발·대학 관계자 연수 등도 시행하고, 그 활용 성과 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보급도 추진

○ 아울러 직업체험의 현장성 제고를 위한 산업계의 참여 확대, 고품질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도 추진할 필요

- 산업계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직종별·업종별 현직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직업세계의 다양한 모습을 전달할 수 있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향후 학생이 직접 산업체를 방문하여 현직자의 지도하에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
  · 산업계 참여 유도를 위해 경총·대한상의 등과 공동으로 CEO의 인식 개선을 위한 워크숍·세미나, 우수 참여 기업에 대한 포상 등도 추진

- 고품질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보급과 관련하여, 진로정보 UCC 페스티벌 개최, 민간기업의 진로탐색 게임 개발 유도 등을 통해 게임·영상물 등 학생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학교 진로정보·콘텐츠 개발 및 확대를 추진
  · 캐나다, 독일, 호주 등은 학생의 미래 인생을 가상현실에서 체험하는 'Real

Game' 운영

2) 실제 업무 수행 능력 중심으로의 채용 관행 변화

□ 현황

○ 현재 청년층 고용 문제에 대해 수급 불일치와 눈높이 불일치 등이 계속 지적되고 있으나, 단순히 총량 및 부문별 인력 수급 불일치 외에 채용 구조의 문제도 이러한 청년층 고용 문제의 악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함

- 즉 일자리를 찾는 구직 청년층이 학점·TOEIC·자격증 등 외형적 '스펙 쌓기'에만 몰두하는 현상

- 여기에는 공무원·공기업·교사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공부문에서 필답(paper and pencil) 위주 선발이 유지되는 점도 중요한 영향

○ 이러한 스펙 쌓기가 한편에서 학력이나 자격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구직자의 역량을 외재화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으나, 실제 역량과 무관한 스펙의 인플레 속에서 부작용이 나타남

- 기업은 인플레된 스펙 속에서 구직자의 재능을 제대로 검증해 내지 못하는 상황이며, 다른 한편 구직 청년층은 스펙에 대한 기대로 대기(對機)실업 기간만 장기화되는 경우 빈발

> 중앙일보 2009. 3. 16 "영어·학점 '스펙'만 관리…엑셀파일 분석 못 하기도" "인성·도전정신만 봅니다" 채용기준 변경 기업 늘어
>
> 두산그룹의 인사담당자인 오영섭 부장은 "우리는 대학 졸업자를 뽑을때 지원서에 '학점란' 자체가 없다"며 "신입사원 선발 때 인성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조선업체 인사부장 박모 부장 말도 비슷하다....."영어 토익이나 대학 성적이 아닌 '성격 좋은 사람'을 뽑아 우리가 원하는 인재로 키우는 정책으로 바꿨다." 신입사원을 그간 토익과 대학 성적 등을 중심으로 뽑고 보니 현장의 실무 능력이 너무 부족해 고심 끝에 마련한 대책이라는 설명이다.....대졸 취업자들의 경우 학점, 영어 성적, 대외활동 등 이른바 '입사에 필요한 스펙'만 신경 썼지 정작 실무에 필요한 능력은 형편없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대졸취업 지원자 중 실무 능력을 잴 수 있는 마땅한 잣대가 없다 보니 요즘 기업들은 도전적이거나 협동심이 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뽑는 추세라고 한다....중앙일보 설문조사에서도 30대 그룹 인사담당자들은 신입사원 채용 때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도전정신(28%)을 꼽는다고 응답했다. 조직 적응력과 협동

심(27%), 창의성(22%), 도덕성(18%) 등이 뒤를 이었다....12일부터 신입사원 채용에 들어간 삼성전자도 면접이 당락을 좌우한다. 일정 기준(학점 3.0점 이상, 토익 스피킹 4~5급)만 넘으면 더 이상 학점이나 어학 능력은 신입사원 선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신입사원을 뽑으면 4주간 합숙을 통해 재교육을 하며 이 과정에서 신입사원은 기업 문화와 경영철학을 익히거나 봉사활동을 한다.....한화그룹 인사팀의 이대우 부장은 "특정 회사에서 필요한 과제를 대학에 위탁하면 대학에서 그 과제를 수행했던 학생들이 그 회사로 입사하는 산학 연계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개선 방안

○ 교육-일자리 연계는 청년층의 job matching 과정으로 그 핵심은 구인과 구직 사이의 '정보 일치성'(information congruency between job seekers and recruiting companies)

- 이와 관련하여 미국식 자유시장 연계의 장단점, 일본식 장기거래 연계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한국형 교육-일자리 연계 모델을 모색할 필요

- 미국식 시장 연계 모델은 세부적으로 정의된 역량 모델을 전제로 기업 및 근로자 모두 구인과 구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실과 부합하는 '액면' 위주로 시장 거래가 형성

- 일본식 전통적 장기거래 모델은 역량 자체는 세부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가운데, 학교와 기업의 장기거래를 통해 양자간 정보 불일치를 완화

- 한국은 미국과 같은 투명한 시장 거래 풍토나 기반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식 장기거래도 포기된 상태
  · 여기에는 기업의 인력 채용 및 활용에서 단기주의적 행태도 중요한 역할

- 향후 청년층 일자리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채용 구조, 혹은 교육-일자리 연계 방식의 개선이 필요, 잠정적으로 교육-일자리 연계에서 미국식과 일본식의 절충형으로 한국형 모델을 개발, 정착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

- 이와 관련하여, 기업과 구직자가 서로의 상황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로서 인턴제, 현장실습 등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

○ 인턴 제도가 갖는 긍정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 가능

- 인턴 업무 Road Map의 부재
  · 일반적으로 신입 직원이 기존 업무 관찰·보조를 거쳐 실제 업무 담당으로 발전하므로, 인턴 초기 단순 업무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평가는 곤란
  · 다만, 관찰·보조 업무로부터 실질적 업무 수행까지 나아가는 Road Map이 없는 상태에서, 관찰·보조 업무만을 반복하며 불만이 누적

- 조직 내부의 인턴 및 멘토링 경험자 부재로 실질적 관리가 불가능
  · 조직 내부에 인턴십 경험자가 거의 없어 적절한 멘토 선정이 불가능

- 인턴 프로그램의 부재
  · 이와 관련하여, 각급 학교의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체계적 프로그램 부족'이 30.5%, 현장실습 미참여 기업의 미실시 이유로 '적절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없음'이 33.0%, 현장실습 미실시 기업에 대해 어떤 점이 달라져야 현장실습에 참여의향이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23.7%가 '업무방해를 덜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응답 (정주연·장수명·최영섭, 2006)

- 그 결과, 순수하게 민간 기업이 우수 인재 채용 목적으로 실시하는 인턴제를 제외하고, 정부 지원 하에서 실시되는 각종 현장실습이나 인턴제도의 경우 단순 업무로 일관하거나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상당수

○ 따라서 향후 인턴제 확대 및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턴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장 시급

- 이는 단순히 직무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행 과정에서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대한 감시 감독의 문제, 더 나아가 지속적 개선의 문제 등 시스템 차원에서의 개선을 필요로 함

○ 다음으로 정부 인턴 프로그램도 인턴의 실제 필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

- 특히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 현재 행정인턴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공무원

으로 취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행정인턴의 수요와 맞지 않음

- 이에 따라 민간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Marketing 특강, 취업적성검사, 리더십 개발 교육, 6-Sigma 교육 등을 추가하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인턴 외에 민간 기업 인턴에 대해서도 참여를 허용하는 등, 인턴 기간이 실질적 경력 개발 과정이 되도록 개선할 필요

○ 아울러 정부 보조를 받는 인턴 참여 기업의 인턴 선발 및 운영에서의 책무성을 제고

- 인턴 참여 기업의 신중한 인턴 선발 및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실제 인턴 채용 실적을 차년도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 반영
  · 현재 정부 요구에 못이겨 인턴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기업의 경우 저임노동력 활용 차원에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것이 향후 인턴제의 제도적 활성화에 중요

○ 범부처 공동의 통합형 인턴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인턴 제도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시스템 정비

- 사업대상·주관부처별로 분산된 인턴 프로그램을 하나의 통합 프로그램(umbrella program)으로 종합하고, 대상·목적별 세부 프로그램은 통합 프로그램의 하위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

- 통합형 인턴 프로그램의 브랜드화 및 기업·학교·청년층 대상의 뉴스레터 발간·광고 등 마케팅 강화
  · 영국의 경우 Apprenticeship 활성화 과정에서 Apprentice newsletter 발간, TV 광고 등 도제제도에 대한 마케팅 활성화 사례

○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선발과정의 한 단계로서 인턴제 정착 유도

- 교사 채용 시 단기 교생실습 대신 1년 동안의 인턴 경력을 선발 요건에 반영하는 등, 현장 전문성에 기초한 채용 구조를 정착

-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연간 선발인원의 최소 10%를 관련 인턴십 경험자로 채용하는 등, 기존 지필고사 중심에서 탈피

○ 민간 부문에서도 공공·민간 인턴 경력의 활용 확대를 유도

-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인턴 제도가 인력채용 관행으로 제도화되도록 재정 지원, 운영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실시

-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교육-일자리 연계가 기존의 스펙 위주에서 개인의 역량 검증 과정 중심으로 변화되도록 유도

청년문제의 새로운 자각

- 한일 청년의 새로운 대응 -

김종휘
(하자센터 부센터장, 노리단 단장)

아래 글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2개는 [10대, 넌 누구냐? 촛불 그후]와 [20대, 너 떨고있니? 삽질 그후]로 구성되어 출판될 책 꼭지들 중 20대 관해 쓴 것에서 고른 것입니다. 나머지 1개는 6월 1일부터 열리는 2009서울청소년창의서밋에 참여하는 한일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의 특별회의 등에 관한 정보를 담기 위해 어떤 판이 만들어지는지를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 난 찌질이야

젊은날에 “집 나가면 개고생”을 즐겁게 하지 못하고 스펙하고 맥잡하며 오늘의 불안

을 내일의 불안으로 달래는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농담처럼 주고받는 유행어가 있어요. 이 말은 선배 세대에게 답변조로 반응할 때 자조 섞인 항변이나 자포자기의 제스추어처럼 쓰기도 해요. 바로 찌질이라는 말입니다. MBC TV 오락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나오는 40대 박명수 씨만 해도 찌질이 비슷한 하찮이 소리를 듣지만 분위기는 20대 찌질이하고 무척 달라요.

20대 청년들이 말하는 찌질이는 겉만 보면 얌전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 사회문제나 세상물정에 관심을 두는 건 사치로 여기고 자기 앞가림에만 바쁜 청년이에요. 실은 자기 앞가림조차 벅차고 버거워서(이 사회가 그렇게 제 앞가림만 하고 또 하도록 20대 청년을 계속 돌려온 결과) 그에 적응하느라 한없이 작아지고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청년이에요. 그럼 하찮이처럼 앞뒤 없이 호통이라도 치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찌질이는 "이건 내 탓이지 뭐"라고 믿고 계속 제 앞가림에 정진하는, 그러면서 쿨한 척 하는 외톨이 청년의 자화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말을 20대 청년이 쓸 때는 "난 찌질이니까 뭐" 하는 방어 논리이자 자포자기의 위안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뭘 기대하지도 비판하지도 말아달라"는 호소지요. 반면 저 같은 선배 세대가 20대 청년에게 "그러니까 넌 찌질이야" 라고 말하면 비난이 됩니다. 20대 청년을 완전히 주저앉히는 비수가 되고 말지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난 너희 나이 때 안 그랬는데 너흰 왜 그러냐?"고 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찌질이라는 말의 쓰임새를 통해서 청년세대가 향후 10년 뒤 30대 자기 모습, 20년 뒤 40대의 자기 모습을 그려보고 그것과 다른 인생의 길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다른 인생을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예감을 살짝 맛만 볼 수 있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인생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산만큼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그러자고 반은 농담처럼 반은 진담처럼 이 말 찌질이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는 주변을 보면 20대 청년의 상태를 아무리 후지게 바라본다고 해도, 즉 스스로 찌질이라는 농담을 쓰더라도 이렇게저렇게 다른 길을 모색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지요. 또한 그렇게 찌질이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도 실은 우리의 일상 속에 많이 있는 편이고요. 어쨌거나 그런데도 결국에는 찌질이의 인생길로 접어들어서 거기에 틀어박히는 전형적인 사례가 있어요. 찌질이, 그 두 개의 극단을 들어보지요.

하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찌질이가 되는 경우에요. 그는 회사와 직장 상사가 하라는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른 생각을 안 하니 다른 활동도 하지 않고 다른 사회관계도 없지요. 회사를 빼면 자신의 인생을 좀 다른 모습으

로 그려보는 꿈조차 꾸지 못해요. 물론 꿈이 있다면 승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10~20년 지나 다행히 해고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승진에 성공하면 과장쯤 될 거에요.

이렇게 사는 게 왜 찌질이냐면 20대 청년기부터(실은 그보다 더 일찍부터) 대기업 직원과 공무원만이 마치 '정품 인생'인양 그에 맞춰서 살기 때문이에요. 대기업 사원이라도 끊임없이 다른 생각, 다른 활동, 다른 사회관계를 만드는 사람은 결코 찌질이가 아니에요. 반면 '정품 인생'밖에 모르는 이는 자신을 계속 '정품'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믿어요. 대기업 입사나 공무원이 되기 위해 오직 자기 안에 틀어박혀 사는 청년은 그 시간만큼 비례해서 먼저 찌질이를 내면화하는 겁니다.
하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연 '정품'에 맞춰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과장쯤 되어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 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대기업에 다니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정품 인생'이라고 믿고 거기에 끼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것, 대기업에 입사해도 언제 '정품 인생'에서 낙오될지 몰라서, 나보다 더 완벽한 '정품 인생'들이 즐비한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전부처럼 되는 것이 찌질이라는 거에요. 즐겁고 가치 있는 인생의 수많은 가능성을 일찌감치 내다버리고서 말이지요.

다른 하나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프리타, 니트 등으로 살아가면서 찌질이가 되는 경우에요. 불안정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를 놓고 가끔은 "세상 때문이야" 탓하거나 "세상이 뭐 그렇지" 한탄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못나서 이래"라거나 "내가 못해서 그래"라고 하는 패배자의 마음을 내면화하면서 살아가요. 정규직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한몫 벌지 못해서 그렇다고 믿는 시간만큼 비례해서 자신도 모르게 찌질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타인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봐요. 자신이 남만큼 구실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해도 속으로는 끝없이 불안해요. "나만 왜 이러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이 말을 던져요. 이렇게 자기 혼자만의 중얼거림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하며 살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를 '불량품 인생'이라고 여기게 되고, 사는 내내 그 생각을 떨치지 못한 채 살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말아요.

하지만 인생에 과연 '불량품'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정품'이 되려고 애쓰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듯이, '불량품 인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지요. 선과 악이 완벽하게 나뉠 수 없고 장점과 단점이 따로 존재할 수 없듯이, 굳이 이 비유를 쓰자면 우리 인생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정품'이고 어느 정도는 '불량품'이에요. '정품'과 '불량품'의 배합으로 치면 사람은 전부 다르지요. 그것이 개성이고 인격이며 저마다의 '맞

춤형 인생'이고요.

'맞춤형 인생'을 살아서 제각각인 이들이 어울려야 다양성이니 독창성이니 창의성이니 하는 게 나와요. 반대로 '정품 인생'끼리 모인다면 그래봐야 똑같은 '정품'이고, '불량품 인생'끼리 큰 세를 이뤄도 역시 매한가지 '불량품'이에요. 이야기를 돌리지요. 찌질이란 똑같은 무리 안에서 나오는 심리 유형이에요. 조금씩만 다른 이들이 모이면 거기서는 찌질이가 나오지 않지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자꾸 같아지려고 하고 같아지는 만큼 더 불안해지는 게 찌질이에요. 그러느라 인생의 다른 걸 못 보는 거지요.

요약하면 위에서 예를 든 어느 극단에 속하든 찌질이의 내면과 결론은 같아요. 세 가지 점에서 그래요. 하나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즐겁게 잘 할 수 있는 것, 그걸 찾아보지도 해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보낸다는 겁니다. 다음은 자기 인생을 걸고 함께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게끔 용기를 주는 파트너, 소울 메이트, 동료를 만나보지 못하고 외톨이로 산다는 거에요. 끝으로 하고 싶어서 한 그 일이 사회와 세상을 더 좋게 바꿀 수도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경험하지도 알지도 못한 채 인생을 살지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정품' 아니면 '불량품'의 이분법 구도를 무시하는 것,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인생'의 여행을 즐기는 것 뿐이에요. 이분법의 구도에 갇힌다는 것은 눈길을 양 극단에 빼앗긴 채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불안하게 여기는 거에요. 반면 이분법의 구도를 넘어서서 인생을 즐겁게 사는 비결은 간단해요. 양극단 사이의 다양한 스펙트럼 곳곳을 누비는 가벼운 발길이지요. 잊지 마세요. 스펙트럼은 늘 광활한 노다지이나 양극단에 눈길을 뺏겨서 발길이 제자리에 얼어붙으면, 그때부터 '정품'이든 '불량품'이든 찌질한 불안만 증식한다는 것을요.

불안은 정말이지 영혼을 갉아먹어요. 마음에 구멍이 한번 휑하니 뚫려버리면 나중에 사랑이 찾아오든 혁명이 일어나든 행운이 깃들든 아무 소용이 없어진답니다. 갑자기 찾아온 위기나 불행은 그것에 대해 거리를 두고 생각하게 되고 과거의 즐거웠던 자신을 떠올리며 다시 한 번 일어서볼 힘을 만들지만, 서서히 내 심신을 물들이듯이 지속되는 위기나 불행은 나의 체취나 피부처럼 일체가 되어서 떨쳐버릴 수 없는 내면의 풍경이 된다고요. 이놈의 불안을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길은 오늘 하루의 즐거움을 만드는 행위 밖에 없어요.

이때의 즐거움이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고 그걸 찾아보는 행위 안에 있어요. 놀든 쉬든 일하든 그 물음과 모색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만 나오는 즐거움이에요. 그렇게 하다보면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동행할 수 있는 동료나 선배를 만나는 겁니다. 일단 만남이 일어나면 혼

자서 불안해하던 상태와는 다르게 서로를 명랑하게 만드는 기운이 만들어져요.

내가 하고 싶고 잘하는 것을 찾는 것 그리고 새롭게 파트너를 만나는 것. 이것은 앞뒤 순서가 아니고 엎치락뒷치락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고 결과에요. 이런 상태로 변화하려면 우선 집에서 나와야 해요. 개고생이 얼마나 재밌는지 맛봐야 해요. 자기 마음 안에서도 나와야 해요. 함께 몸을 부대끼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느껴봐야 해요. 오늘의 작은 불안을 내일의 더 큰 불안으로 이월하는 찌질이의 나홀로 생활습관과 단절하는 첫 걸음은 바로 집 밖과 마음 밖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에요.

이 첫 걸음이 새로운 나를 만드는 창조적 파괴라고 할 수 있어요. 나 홀로 지새워 만든 어제의 불안이라는 모래성을 오늘의 파도에 맡겨 허무는 파괴, 그렇게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관계들에 문을 열고 어제와 다른 나를 빚어내는 거에요. 우리 인생에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에 짝사랑 하듯 혼자 바라보고 혼자 포기하는 나부터 파괴해야 해요. 그것은 누구든 내 안에 들어오게끔 집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럼 찌질이의 형질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게 창조의 시작입니다.

• 멋대로 해보라니

혹시 <신세대 : 네 멋대로 해라>(1993, 현실문화연구, 송재희 등 공동집필)는 책을 본 적이 있는지요? 지금은 절판입니디만, 이 책이 나온 한 해 뒤에는 같은 곳에서 <신세대론 : 혼돈과 질서>라는 책을 펴냈어요. 1998년에는 칼럼니스트 김현진 씨가 당시 자신의 10대 경험을 바탕으로 <네 멋대로 해라>(한겨레신문사>는 책을 냈고요. 한일 월드컵 열기가 남아있던 2002년 여름에는 양동근과 이나영 씨가 주연을 맡은 MBC TV 드라마 <네 멋대로 해라>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폐인 현상을 일으켰고요.

'네 멋대로 해라'는 구호는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조금씩 다른 쓰임새로 변형을 거치긴 했으나 어쨌든 당시 청년세대의 마음을 흔들었지요. 하나 이 말의 울림은 10년 남짓한 세월의 울타리를 넘어서지는 못했답니다. 앞서 봤듯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청년세대는 '버림받은 청춘 10년'의 시기로 접어들었고, 오늘날에는 자칭 찌질이라는 말로 자조하는 우울한 자화상이 청년의 일상이니까요. 그렇다면 '네 멋대로 해라'가 유행하던 시절의 청년들에겐 찌질이와 견주어서 어떤 이름이 어울렸을까요?

아마 똘아이 쯤 될 것 같네요. 네이버 사전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똘아이 라는 말은, 어른 말 듣지 않고 제 멋대로 노는 아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가난뱅이의 역습>의 마쓰모토 하지메 씨, 그리고 <성난 서울>(2009, 꾸리에)의 주

인공인 야마미아 카린 씨가 대표적인 똘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른 말 듣지 않고 노는” 모습에서 약간의 노선 차이가 있지만, 둘 다 1970년대 중반에 태어났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을 잠깐 소개하지요. 마쓰토모 하지메 씨는 ’롯폰기 힐스를 불바다로’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경찰을 혼비백산하게 만들고는 시내의 다른 공공장소로 이동해 찌개를 끓여먹는 인물로 현재는 재활용 가게 ‘아마추어의 반란’ 점장이에요. 그는 노숙의 기술을 연마한 후 ‘가난뱅이가 설칠 수 있게 하라’는 일념으로 공공장소에서 찌개를 끓이고 냄새를 피운 다음 모여든 이들과 두런두런 음식을 나눠먹고 수다를 떠는, 요식 행위인지 전위 예술인지 경계가 묘한 퍼포먼스를 하는 괴짜 청년이지요.

야마미아 카린 씨는 10대 시절부터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어요. 극우 록 밴드의 리드 보컬로 활동하다가 전향해서 실업과 빈곤에 처한 일본 청년의 벗이 되어 ‘사운드 데모’와 ‘노이즈 액션’으로 시위를 조직하는 활동가가 되었거든요. 또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내고 잡지 편집위원으로 바쁘게 사는 르뽀 작가인데 일본 서점가의 빈곤 코너에서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 셀러라고 하네요. 스스로를 프레카리아트(형용사 불안정한 precarious와 프롤레타리아트 ploletariat를 합친 신조어) 활동가로 부르는 그의 첫 번째 책은 <생지옥 천국>(2000)입니다.

이렇듯 일본에서는 시대의 똘아이라고 부를만한 몇몇 스타들이 청년 그들로부터 아래에서 솟구쳐 나왔어요. 그들이 20대였던 시기에 한국에서도 ‘네 멋대로 해라’는 구호가 뜨긴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레토릭으로만 쓰이고 끝난 건가 싶게 수그러들었어요. 반면 일본에서 그들은 30대가 되어서도 계속 똘아이의 활동을 연장하고 확장했어요. 이들의 길은 개인의 ‘똘끼’ 표출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고 지지받는 삶의 한 방식이 되어 비록 소수이나 똘아이의 지속가능한 선행 사례로 남은 거에요.

이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네 멋대로 해라’며 청년들의 똘아이 행위가 분출하던 분위기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전까지였어요. 이를테면 1990년대 후반 홍대앞 인디 밴드의 이름 중에는 ‘노브레인’이나 ‘불타는 화양리 쇼바를 올려라’가 있었죠, 2000년대 후반이면 이름이 ‘눈뜨고 코베인’이나 ‘브로콜리너마저’ 같이 바뀌어요. 노래도 ‘말달리자’처럼 내지르다가 ‘외로운 것이 외로운 거지’나 ‘앵콜요청금지’로 변했구요. 물론 이런 작명은 예나 지금이나 인디 밴드들 사이에선 별다른 의미로 쓰이지 않으나 서로 다른 정서인 것은 분명해보여요.

이런 비교를 하는 이유는 지금 한국 사회의 20대 청년들 사이에서 똘아이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해서에요. 앞서 ‘잃어버린 청춘 10년’ 이야기를 했

지요. 물론 그 10년을 오디세이기 같은 대응기로 승화하자고 했지만, 그 길이 똘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청년세대에게 1990년대의 구호처럼 '네 멋대로 해라'고 해봐야 멈칫하는 이의 등만 떠미는 강요가 되고, 신해철 씨가 1999년에 부른 노래 '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해봐야 구석에 웅크린 이를 몰아세우는 폭력만 되거든요.

10대 시절엔 '입시' 스펙을 위해 뛰고 20대엔 '입사' 스펙을 위해 뛰었으나 맥잡 외에는 보장받는 게 별로 없는 망연자실한 세대가 지금 청년이에요. 그래도 별 수 없이 스펙하고 맥잡하며 딴 길로 들어서기 겁나 해요. 공부하고 시험보고 자격증 따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서지요. 지금 20대 청년은 대학 3학년이나 20대 후반만 되어도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며 늙은이처럼 되어버려요. 이렇게 된 것이 20대 청년 스스로 원하고 선택해서 자초한 결과인가 하면 아니지요.

하여 원치 않았는데도 시대의 찌질이가 된 것인데, 찌질이에게 '네 멋대로 해라'고 하면 반작용과 부작용만 생기고 말아요. 이제는 그런 말 하면 앞선 세대의 자기 과시나 책임 면피밖에 다른 용도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청년세대가 현재 어디에 있으며 어떤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대책을 찾아야 해요. 한번 살펴보지요. '버림받은 청춘 10년'을 지나온 20대 청년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의 인생 시나리오를 앞두고 있어요.

가장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비정규직이나 프리타처럼 살아다가 다 워킹푸어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는 걸 가까스로 막고 있는 것이 부모들이에요. 만약 부모의 삶이 흔들리면서 20대 자녀 양육의 바람막이 구실을 못하게 되는 순간, 즉 부모로부터도 어쩔 수 없이 버림받는 순간 지금의 20대는 홈리스나 다름없는 평생 하층계급으로 떨어져요. 다른 삶의 방식을 찾지 못한 채 여기로 떨어지면 다시는 올라오기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당장은 첫 번째 시나리오와 다른 것 같으나 장차 첫 번째 시나리오로 옮겨갈 가능성이 많아요. 대학 졸업하면 어쨌든 전공이 있고 자격증이나 인턴도 미리 준비하니까 초보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초보 전문가들이 예전 같으면 사회적 존경도 받고 경제적 보장도 받았는데, 시스템이 다 바뀐 지금은 초보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란 저임금의 단순 노동과 같아졌어요. 앞서 맥잡 이야기를 했지요. 겉으론 정규직이고 번듯한 회사원일지 몰라도 어어어 하면 첫 번째 시나리오로 변해 있는 거에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매우 소수의 몫이 되는데요. 그 시작과 끝을 보면 과거와 달리 매

우 험한 꼴 본다는 것을 다국적 금융회사 같은 번듯한 곳에 들어간 청년 신참들의 신속한 추락과 타락이 잘 보여주지요. 이들은 약간은 저항적일 줄 아는 취향과 교양을 갖고 있으나 기업, 관, 전문가 그룹의 내부에 안주하면서 출세의 욕망을 추구하는 신엘리트 계층이에요. 이들 역시 과거의 엘리트에 비하면 더 크고 지속적인 불안에 시달리며 탈락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해야 겨우 이 시나리오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기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워크홀릭 뿐이고요.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20대 청년 다수가 속하는 두 번째와 첫 번째 사례에서 똘아이가 나오길 기대하면 오산이지 싶어요. 똘아이 같아 보이는 청년은 도리어 세 번째 시나리오 계층에서 언뜻 보여요. 이를테면 MBC TV 오락 프로그램 <무릎팍 도사>에 초대손님으로 나오는 20~30대 연예인의 이미지에 어울릴법한 청년이에요. 재능이든 외모든 노력 때문이든 좀 다른 인생관을 피력하는 것 같은 이들 연예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청년들이지요. 그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소비하고 취향을 누리는 척 하는 동안에만 발휘되는 개인적 '똘끼'입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속으로는 아주 허해요. 젊은 연예인의 자살이 부쩍 늘어난 것이 한 가지 방증이에요. 주변을 보세요. 이들의 자살에 크게 영향을 받고 흔들리는 평범한 청년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만 보였던 그들이 특권과 지위를 고수하기 위해 실은 뒤에서 엄청나게 찌질이 노릇을 하면서 속을 끓이며 살고 있었던 것인가 하는 새삼스러운 발견에서 오는 충격이지요. 앞에서 살펴본 찌질이의 속성 세 가지로 보면 더 그래요.

그럼 찌질이 탈출의 가능성은 어느 시나리오에 더 많을까요? 그것은 언뜻 똘아이처럼 보이기도 하는 세 번째 사나리오 계층의 청년이 아니라, 두 번째와 첫 번째 시나리오의 평범한 청년들에게 있어요. 이 가능성은 금융 자본주의, 신자유주의가 파국의 터널을 지나며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요즘 국가나 시장이 생각해온 것과 조금 다른 지점에서 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예컨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찌질이 청년들이지요. "일을 하면 할수록 가난해지는데도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 "스펙하고 맥잡하고 살면 스펙형 인간과 맥잡형 인간이 되는 거 말고 내 인생에 뭐가 남지?" 더 나가면 이래요. "소비를 줄여서 돈 덜 벌고 그만큼 놀면서 즐겁게 사는 길은 없을까?", "죽도록 일해서 소모품처럼 시들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을까?", "착한 일, 남 돕는 일을 하면서도 먹고 살만큼 돈 벌며 살 수 있을까?" 하는 발상들.

이런 생각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보는 시선을 조금 달리 해보고, 지금

과 다른 관계망을 만들면서, 자신의 생활을 문화적으로 재발명하는 작은 도전들에 달려 있어요. 이런 도전을 하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이 길은 더이상 똘아이의 튀는 길이 아니고 20대 청년이면 누구나 해봄직한 명랑하고도 씩씩한 새로운 길이 되겠지요. 하여 이 시나리오를 씩씩이의 길이라고 불러볼까요? 씩씩대며 씩씩하게 오늘을 살아가며 씩 웃는 청년의 모습.

• 2009 서울청소년창의서밋

2009년 6월 1일 ~ 6월 5일
서울시창작공간 남산예술센터(구 남산드라마)

창의성 위기의 삶을 만나다(Creativity meets Life in Crisis)
1. 심포지엄과 특별회의

심포지움	세션 1 : 청소년이 행복한 창의 정책
	세션 2 : 창의도시를 만들어가는 청소년과 학교
	세션 3 : 사회를 풍부하게 하는 사회적기업
특별회의	한일 청년 사회적 기업가 특별회의 '하고 싶은 일로 세상을 바꾸자'
	청소년 진로·직업교육 회의 '청소년 진로·직업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세션 1] 6.2. 10:00~12:30 : **청소년이 행복한 창의 정책**
- 사회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발표
○ 데이비드 이스탄스 (David Istance, OECD/CERI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책임연구원) : 미래사회 청소년 교육과 창의성
○ 데스몬드 호이 (Desmond Hui, 홍콩대학 문화정책연구소 소장) : 세계 각 도시와 국가는 왜 창의성에 주목하는가?
○ 안승문 (웁살라대학교 객원연구원) : 북유럽의 청소년 정책과 창의교육
○ 주용태 (서울시 청소년 담당관) : 창의문화도시 서울의 비전과 청소년 정책
○ 애다 윙 (Ada Wong, 홍콩창의력학교 설립자) : 홍콩 청소년 창의 정책의 흐름과

창의력학교

- 논평

○ 낸시 에이벌만 (Nancy Abelmann, 미국 일리노이대 인류학과 교수)

○ 김민 (순천향대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2009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의 주제는 '창의성, 위기의 삶을 만나다'입니다. '위기'라는 말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50%가 넘는 청소년이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고, 20만 명이 넘는 청소년이 인터넷 중독이고, 한 학급의 30% 이상이 수업시간에 잠을 자고, 한 해 7만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고, 청소년 노숙 인구가 날로 늘어나는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09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심포지엄 정책분야의 회의는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 과연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는 도시의 정책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세계 각국의 창의적인 청소년 정책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어떤 협력을 할지에 대해 뜻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세션 2] 6.2 14:00~17:00 : **창의도시를 만들어가는 청소년과 학교**

- 사회

○ 김현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기조발제

○ 조한혜정 (하자센터, 대안교육센터장)

- 발표

○ 비자야 체트리(학생, 네팔 3Sisters Ltd.) : 소녀트레커의 리더십트레이닝

○ 이보라 (로드스쿨러, 한예종 영상원 학생) : 길에서 다시 생각하는 학교

○ 안지선(영락고 1학년) : 학교도서관에서 시작하는 배움

○ 올가 페이그라딘 (모스코 국제영화학교 교사/ 졸업생) : 기여를 통해 몸으로 배우는 인문학

○ 문지원 (하자작업장학교 졸업생, 영화감독) : 창의적 공공재로부터 창의적 생산자 되기

○ 유하-페카 사리넨 (핀란드 옴니아직업학교 교장) : 사회적 역할 속에서 발견하는 시민학습

- 논평

○ 박화현(예정)

○ 정연순 (한국고용정보원 진로교육센터 연구위원, 평생학습 전문가) : 서울은 즐거운 학교다

디지털 세대의 출현,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문화다양성의 시대 등 키워드와 마주한 청소년들이 혼란과 소외를 겪지 않고 자아존중감을 가지면서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

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학습은 무엇일까요? 핀란드의 옴니아 직업학교처럼 사회적 지지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구원하는 동기를 발견하도록 돕는 혁신적인 공립 학교도 있고, 체제 전환 이후에 다음 세대의 성장에 섬세한 공을 들이고 있는 러시아의 모스코국제영상학교 모델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우학교와 같은 특성화학교나 하자작업장학교와 같은 대안학교가 주목할 만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창의성이란 화두를 잘 보듬으면서 자신의 학습경로를 만들어왔고, 또 앞으로도 평생학습의 설계를 해나가려는 교사와 청년의 이야기 속에서 그 실마리를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세션 3] - 6.3 10:00~12:30 : **사회를 풍부하게 하는 사회적 기업**

나와 다른 너, 협력을 통한 성취 '왜 지금 사회적 기업인가?'

- 사회

○ 유병선 (경향신문 논설위원, <보노보혁명> 저자)

- 주제발표

○ 박찬웅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사회가 다시 시장을 만들다

○ 럭키 체트리 (Lucky Chhetri, 네팔 3Sisters Ltd. 대표) : 여성을 키우는 히말라야 트래킹

○ 양희규 (금산 간디자유학교 교장) : 학교와 마을 그리고 사회적 기업

○ 아쓰코 핫토리 (Hattori Atsuko, Centre for Active Community 대표) : 일본 청년실업의 문제와 사회적 기업

○ 김종휘 (하자센터 부센터장) : 한국 청년실업의 문제와 사회적 기업

- 토론

○ 이재웅 (소셜벤처캐피탈 SOPOONG 시니어)

○ 우석훈 (<88만원세대> 저자)

한국 사회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은 지금 삶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는 굴뚝 경제를 지식정보 경제로 바꿔서 새로운 일자리만 만들면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살이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 또는 '어쩔 수 없다'고 수용해온 삶의 방식이 근본적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승자독식 유아독존의 게임'을 자본주의의 이치인양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서로를 끝없이 적과 패자로 만들어온 것이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온 삶의 문화이자 방식입니다. 발상과 실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션3은 "나와 다른 너, 협력을 통한 성취, 왜 지금 사회적 기업인가?"라는 주제를 두고 사회적 기업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합니다.

[한일청년특별회의] 6.3 14:00~17:00 : 하고 싶은 일로 세상을 바꾸자 '한일 청년 사회적 기업가 사례발표'

- 사회

○ 이은애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

- 발표

○ 오카베 토모히코 (Tomohiko Okabe, 요코하마호스텔빌리지 대표) - 슬럼가 도시재생

○ 이지혜 (오가니제이션 요리 공동대표) - 요리로 다문화 공동체 만들기

○ 구도 케이 (Kei Kudo, 소다테아게넷 대표) - 히키코모리, 니트족, 프리터족의 사회복귀

○ 홍대룡 (노리단 공동대표) - 20대 청년 몸을 깨워 마음을 바꾸기

○ 이토 타케시 (Takeshi Ito, 아소봇 대표) -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시부야 대학

○ 조성도(펭도, dooing 공동창업자) - 디자인으로 발언하는 청년들

- 토론

○ 이토 켄 (Ken Ito, 일본 ISL 디렉터, SVP 멤버)

○ 조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명문대 진학, 대기업 취업, 돈이 유일한 목적이어서 인생의 또 다른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워줄 사회관계를 '폐기'하고 자기 안으로 '유배'되어 쳇바퀴 같은 생활을 반복하면서 인생을 소진하고 있는 풍경은 한일 청년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청년문제의 양상이 통한 탓인지 한국과 일본에서는 문제의식도 같고 실천방식도 닮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청년 세대가 직접 사회를 혁신하는 길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특별회의에서는 이런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과 즐거움을 되찾은 한일 양국의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사례를 들려주고 '청년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은 일로 세상을 바꾸자"는 청년들의 명랑/맹랑한 도전이 후배에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으면 합니다.

[청소년 진로·직업교육 회의] 6.2 18:30~21:30 청소년 진로·직업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대 상 : 전문계 고등학교 교장·교사, 각 학교 진로직업교육 담당 교사, 예비교사 등
- 장 소 : 하자센터 999클럽
- 주요 내용

청소년 직업교육을 포함하는 평생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핀란드 옴니아 직업학교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 학교의 인기 비결과 특별한 운영방식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직접 들어본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진로·직업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 사회자 : 정연순(한국고용정보원 진로교육센터 부연구위원)
- 발표 및 토론자

○ 유하-페카 사리넨 Juha-Pakka Saarinen(핀란드 Omnia 직업학교 교장)
○ 강석(서울시 경영기획실 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지원팀장)
○ 강연홍(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국 직업진로교육과 장학관)
○ 조영훈(산돌평화교육연구소 소장, 대안교육연대 포스트중등과정 연구모임)
○ 김종관(성동공업고등학교 교장)
○ 하인호(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 강원재(하자센터 기획부장)

* 핀란드 옴니아 학교 소개

핀란드의 직업학교 그룹 옴니아 OMNIA! “모든 길은 옴니아로 통한다”는 말로 자신의 학교를 소개할 만큼 아동부터 청소년, 성인에 이르는 평생교육으로서의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헬싱키와 주변지역 여러 곳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가장 큰 직업학교로서 5천여 명의 16~20세 주간반 청소년과 2천여 명의 야간반 청소년 성인들이 학생으로 있고, 600여 명의 교직원이 일하고 있다. 옴니아 학교는 졸업자가 직업·노동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가장 우수한 능력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위기의 시대, 실종된 청년성의 새로운 모색

: 세 청년의 이야기로 풀어보다

엄기호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1. 집에서 나오지 못하다

지방대를 나와 서울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먼 친척 동생 형석을 얼마 전까지 데리고 있었다. 공수특전단을 나올 만큼 건강했던 형석이었는데 지금은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만성위염에 시달리고 있다. 구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방대 비인기 학과를 나온 그에게 돌아갈 일자리는 없었다. 서울에 올라와서 취업 준비를 하는 통에 여자 친구와도 헤어졌다.

군대 제대 뒤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만난 새내기 여학생과 시작한 연애였다. 사랑과 열정을 호르몬의 작용으로 보는 생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적어도 석 달 동안은 아무런 사회적 조건에 대한 고민이 없이 뇌를 들뜨게 하는 열정적 사랑에 빠졌어야 옳다. 그러나 그 둘의 사랑은 시작부터 '슬픈 것'이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미 오래전부터 사랑도 투자의 대상임을 잘 알고 있었던 부자들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풍경이다.

형석의 새내기 여자 친구는 학교에 들어오자마자 머리를 싸매고 서울의 대학으로 편입을 준비했다고 한다. 그녀의 인생에서 성공은 오로지 이 편입에 달려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여자 친구의 편입이 성공하여 지방을 뜬다면 당연히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형석은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여자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랐지만, 자기와의 헤어짐을 뜻하는 그 성공이 마냥 좋기만 하지는 않았다.

이미 편입에 실패하여 서울 입성을 하지 못한 채 지방대를 졸업한 형석도 취업 준비로 그 지방을 떠야 했다. 역시 자신에게도 인생의 사활이 걸려 있는 일이었기에, 서로의 거취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하는 일은 꿈도 못 꾸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조절하고 기획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가뭄에 콩 나듯이 주어지는 몇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맞추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서로 엇갈리는 시간을 보내면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들의 연애는 곧 깨질 수밖에 없었다. 형석은 지방대생의 사랑은 슬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대에서는 어느 한쪽이든 서울로 더 일찍 떠날수록 경쟁에서 성공한 삶이기 때문이다. 떠남이 미리 전제되고 축하해야 할 일이 된 곳에 머무르는 두 마리 철새의 사랑은 슬프지 않을 수 없다.

몇 년 사이 형석은 세상에 주눅이 들어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형석은 눈물을 흘렸다.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중증장애인 도우미 등 온갖 일을 다 해 보던 형석은 지금 토익 시험을 준비 중이다. 토익 시험을 왜 보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취업 준비라고 했다가 다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자기도 세상이 인정하는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잘해서 이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고 싶어서란다.

형석과 함께 서울에서 취업을 준비하던 같은 대학 친구는 부모님 신세를 지기 싫어 호스트바를 나갔다고 한다. 나는 어려운 결정을 한 친구보다 “그 친구는 잘생기고 신체도 건장해서 호스트바에서도 일할 만하다.”라고 말하는 형석의 모습에서 더 충격을 받았다. 그래도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것만큼은 말려 보지 그랬냐고 했더니 형석은 “그럼 어떻게 해요, 먹고살아야죠.”라고 반문했다. 사실 호스트바에서 일한다는 친구는 속칭 ‘날라리’하고는 담을 쌓은 친구이다. 마음 착하고 순해서 오히려 모범생에 가까운 아이다. 결국 형석의 친구는 돈을 벌어 공부하는 일이 무리임을 깨닫고, 석 달 만에 호스트바와 공부 모두 그만두고 다시 시골로 내려갔다.

형석뿐만이 아니다. 서울의 어지간한 대학이 아니면 이것은 모두가 느끼는 공포이다. 나는 2008년부터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문화인류학을 강의하고 있는데 예상외로

아이들이 외국여행에 대한 동경마저도 별로 갖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단히 놀라곤 하였다. 아이들은 외국을 동경하고 여행하는 유목민적인 삶을 선호하기 보다는 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알콩달콩 사는 그런 소시민적인 삶을 더 선호하고 꿈꾸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취업이라는 단 하나의 생존 수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사랑 따위는 사치에 불과하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강요된 선택'을 개인의 선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석훈은 《88만원 세대》에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해서 동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할 수 없는 십대들의 섹스를 "슬픈 섹스"라고 불렀다. 그런데 과연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다고 해서 88만원 세대의 섹스와 연애는 달라질까? 아니다. 88만원 세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의 대다수는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은 길어야 그 유효기간이 2년에 불과하다.(앞으로는 4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노동이 이처럼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이게 되었는데, 자기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지속가능한 삶이 가능하겠는가?

이처럼 그나마 그들의 경제적 독립은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독립이 되었으며, 노동의 세계화로 공간적 안정성 역시 일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노동의 유연화는 언제나 일시적이고 잠정적이기에, 연애와 사랑, 가족처럼 한정적 시공간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하는 인간 사이의 친밀성과 유대감, 연대의 틀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 노동의 형식이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청년들에게서 임시적으로 소비할 노동력이나 혹은 매끈한 몸매 말고는 아무런 다른 관심도 보여 주지 않는다. 미래가 없는 비정규직이라는 운명이 일찌감치 결정된 이들이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불안정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을 불안정이라는 뜻의 precarious와 프롤레타리아트 proletariate를 합성하여 프리카리어트(precariate)라고 부른다.

프리카리어트는 단순하게 노동자들 가운데 좀 더 주변화되고 착취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노동을 착취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나타난, 진정으로 새로운 무산자 계급을 가리킨다. 그런데 묘하게도 프리카리어트는 초기 자본주의 노동자 계급의 상태와 비슷하다. 초기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던 임금은 정확하게 그가 자기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빵과 우유에 불과하였다. 그 임금을 가지고 노동력을 다시 재생산하여 공장으로 돌아와 다시 자본가에 파는 일이 그 노동자의 의무였다. 자본가는 그 과정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그들은 일회용 휴지였다.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었다. 이는 바로 지금 프리카리어트의 모습이다.

지난 2백여 년 동안 산업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은 바로 이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재생산 비용이 무엇인가를 둘러싼 투쟁이기도 하였다. 점차 임금에 빵과 우유를 살 돈뿐만 아니라 주거비가 포함되었고,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 교육비가 포함되었으며, 노동자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계발에 필요한 비용이나 여가비 등이 투쟁을 통해 임금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이 프리카리어트라는 무산자 계급에게 제공되는 임금과 노동 조건은 다시 이들을 일회용 휴지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

이제 자본은 더 이상 프리카리어트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 알아서 자신에게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초기 자본주의의 노동자들처럼 프리카리어트 역시 한번 쓰고 버려질 몸뚱아리 말고는 자본으로 만들 수 있는 자원을 아무것도 갖지 못한,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다. 투자란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일 뿐, 미래가 없는 프리카리어트들은 현재를 소비하거나 단 한 번 도박에 미래를 걸 수밖에 없다.

이 프리카리어트는 바로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프롤레타리아트를 대체하는, 현대의 새로운 무산자 계급이다. 그리고 지금의 청년들, 앞으로 우리 아이들 대부분이 이러한 새로운 무산자, 프리카리어트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2. 집에서 나와 세상과 단절되다

그나마 이런 불안전한 독립이라도 하려고 하면 그들은 다시 한 번 주변 세계와 완전히 담을 쌓아야한다. 다음은 2008학년도에 원주에서 내가 한 강의를 들었던 공무원으로 취업에 성공한 한 학생이 보낸 취업을 위해 공부하는 동안의 자기 규율에 대한 보고서이다. 취업을 하기 위해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관리하고 자기를 다 잡아야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① 무조건 가지고 있는 책은 30번씩 읽어라: 시간이 없다고 반복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반복하면 할수록 점점 걸리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물론 대충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충분히 반복하는 것은 학습에 많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② 잡생각하지마라: 붙기 위한 시험입니다. 공무원 하나의 포커스를 맞추어 온신경을 집중해야지 딴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③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사람은 규칙적인 사이클로 돌아갈 때 가장 좋은 컨디션을 발휘합니다.

④ 모의고사에 연연하지마라: 모의고사에 일희일비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대로 모든 시험은 끝난 순간 잊어버리십시오. 계속 생각한다고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분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⑤ 운동 꼭 해라: 시간에 쫓기고 귀찮다보니 대부분의 수험생이 운동에 소홀합니다. 운동을 통해 땀을 빼면 머리도 맑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이 학생은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아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이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시간이 든다. 이것은 서울 명문대를 다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의료전문대학원 준비를 하는 한 최상위 대학의 학생은 사람을 만나면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는 것 때문에 연애를 하지 않고 섹스 파트너만 두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섹스 파트너도 너무 자주 만나면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스스로 대단히 절제하면서 만난다고 한다. 스스로의 감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절제이다. 사랑은 취업의 가장 큰 적이다.

다시 취업에 성공한 이 학생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이 학생은 "혼자인 덕분에 점심시간을 입으로는 음식을 씹어 넘기고, 눈으로는 글자를 씹어 넘기면서 보냈고 버스타고 도서관 오가는 중에는 단어를 녹음해서 들었고, 집에 가면 매일 40분 정도 조깅을 했다"고 한다. 혼자라서 가능했다는 것이고, 이 가능성을 위해서 혼자가 된 것이다. 잠자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잠자는 것도 그저 단순하게 안자고 공부하면 된다는 것으로는 취업에 성공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잠자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는 것 역시 중요한지라 7시간은 자도록" 하였다. 이 모든 것을 이 학생은 "철드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잠깐 감동하고 다짐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고, 행동을 옮기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철드는 것이다.

근대 사회에서 철이 든다는 것은 곧 집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나이가 들어 집을 떠나서 자신만의 집을 만드는 것, 그것이 곧 성인이 되는 것이다. 청소년기까지의 삶이 '자유'의 시절이라면 성년의 삶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지는 '자율'의 시대인 것이고, 청년기는 이 '자율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집을 떠나 자기만의 집을 꾸려가기 위한 실험과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동안에 청년들은 단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망망대해'와 같은 세계와 연결된다. 부모와 교사를 거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직접 세계와 맞부딪치면서 자신이 살아가야하는 세상의 모습을 배우고 그 안에서 자기의 위치와 공간을 찾는 것이 바로 철드는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철이 든다는 것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하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의 학생의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세상과 단절해야한다. 세상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자신의 위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고립되어야한다. '엄격한 자기 절제'란 세상과의 절연과 다름 아니다.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자율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세상과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단절해야지만 그나마 밥그릇이라도 챙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세상에서 고립되어버린 이들이 어떻게 자율적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의 청년기에 대한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야한다고 요구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청년들이란 세상에 반항하고 저항하며 '사회 밖으로!'를 외치면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상상력과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왔다. 청년들은 탈주를 꿈꾸는 존재들이며 그 탈주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것이 청년들을 옹호하던 사람들의 위치였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청년들은 권태로운 일상에 지치고 지겨워져서 사회 밖으로는 외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보수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이들은 사회 밖으로 이미 내쳐진 존재들이다. 탈주할 바깥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외치는 구호는 '사회 안으로!'이다. 일회용 존재가 되어 밖으로 내쳐진 아이들이 우리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니 우리들을 셈하여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 이들을 셈해주지 않으니 셈에 쳐지기 위해서 스스로 알아서 성장하여 세상과 단절되는 '엄격한 자기 절제'를 하고 있다. 그것만이 셈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년기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주장해야하는 내용도 바뀌어야한다.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세상과 연결되고 소통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사회적 공간을 주어야한다. 이들이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한다. 지금처럼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아예 집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부모에게 얹혀 살거나 혹은 밥그릇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나서 자기 자신의 위치와 장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들은 세상과 단절되거나 혹은 세상으로부터 내쳐지거나 양단간의 결정을 내려야한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이들이 자율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관건은 이것이다. 이들이 집을 떠나 세상을 만나게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야한다.

3. 어른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다

집을 나오지 못하는 한 청년과, 집을 나오기 위해 세상과 단절되어버린 한 청년의 뒤를 이어 지금부터 나는 어른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한다. 이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우리 시대가 청년들이 집을 나와 세상을 만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다. 위기의 시대에 집을 나와서 청년들을 누구를 만나게 되고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것인지가 이 청년의 이야기에 다 담겨있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집을 나왔던 민철(당시 24세)이 집에 들어간 지 벌써 일 년이 되었다. 하숙비가 힘에 부쳐 집에 짐만 잠시 갖다 놓고, 돈이 마련되는 대로 나오려 했는데, 이 역시 여의치 않았다. 허나 집에 정을 못 붙이는 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자책을 하고, 새어머니는 그것이 모두 자기의 잘못인 양 좌불안석이다. 할머니는 새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가끔 이혼한 어머니 이야기도 하며 새어머니를 식구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지금 민철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은 반지하이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집을 나갔던 장남이 4년 만에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방'을 주고 싶어 하셨지만, 없는 돈에 구할 수 있는 집은 반지하밖에 없었다. 민철의 말을 빌리면 환기가 되지 않아 차를 끓일 때마다 '주전자와 함께 집 전체도 덩달아 펄펄' 끓는다. 더구나 하루 종일 먼지 구덩이에서 일을 하고는, 빛도 들어오지 않고 습기가 차 눅눅한 집에서 쪽잠을 주무시는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함께 아버지의 회사는 부도를 맞아 파산하였다. 그때 민철은 중학교 2학년이었다. 대기업의 설비 하청 공사를 하는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아버지는 결국 빚을 정리하지 못해 감옥에 갔다. 어머니가 보험 설계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출소를 한 다음, 아버지는 정육점이며 여러 가지 다른 사업에 손을 대었지만 족족 망하였다. 명예퇴직이다, 정리해고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그들 모두가 경쟁자였다.

나름대로 시골 유지인 집안의 첫째였던 아버지에게 이런 시련은 감당하기 힘든 사태였다. 외환위기 전만 해도 듬직한 가부장이었던 아버지는, 당시 부도나고 잘렸던 대다수 한국 가부장들이 그렇듯이 응석받이에 의심쟁이로 돌변하였다.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해 늘 불안해했고 종종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가 먹고 살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관계를 의심하였고, 심지어는 어머니 직장까지 쫓아가서 "이혼하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까지 하였다.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가족에게 위세를 부리던 가부장이었으니 하루아침에 그 존재감의 뿌리를 잃어버린 셈이다. 그 모습의 한심함과 초라함이라니.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주 다투었고 결국 이혼을 하였다.

부모의 이혼과 동시에 민철은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마련한 돈으로 집을 나왔다. 그나마 민철은 머리가 꽤 굵고 난 다음에 가족이 해체가 되었기에 하던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고, 잘 나가는 명문대학에 입학하여 독립을 하기에 수월한 편이었다. 하지만 하나뿐인 남동생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갔다. 부모님이 별거할 때, 남달리 덩치가 좋았던 동생은 조직에 가담하였다.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은 한 방'이라고 동생은 '확신'하게 됐단다. 그렇다고 동생이 실제로 한 방에 인생을 완전히 바꿔 보겠다며, 큰 야심을 품거나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동생은 사는 것을 무의미하고 짜증스러운 일로 생각했다. 가끔 동생이 험한 싸움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민철의 가슴은 서늘해졌다. 식구들이 걱정을 하면 동생은 자기말로야 "병풍 역할밖에 안 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가족의 마음이 어찌 그러한가. 어디 취직자리를 알아봐 줄 능력도 없지만, 그래도 그 세계에서만큼은 발을 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럴 때마다 동생은 "내가 배운 것이 있기를 하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일은 이제 이거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고는 "다른 길이 있으면 나도 생각해 보지."라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먼저 의사와 재혼을 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가운데 한쪽을 '가족'으로 선택해야 했을 때 민철은 아버지를 선택했다. 연민 때문이었다. 이유야 어쨌건 아버지에게는 거의 남은 게 없었다. 그런데 자식마저 떠날 수는 없었다. 집에 돌아온 뒤 얼마간은 아버지의 자책과 새어머니의 좌불안석, 할머니의 신세한탄 속에서 정을 붙이기가 힘들었다. 아버지는 연일 술을 마시면서, 아이들에게 과거와 같이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미안해했다. 새어머니는 흠이 없는 분이었지만, 할머니는 가끔 새어머니 앞에서 '옛날에는……'으로 시작하는 말을 읊조리며 민철 어머니 이야기도 늘어놓으며 과거를 그리워했다. 당연히 새어머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다. 아직 아버지와 살림을 합치지 않은 새어머니는 문지방에 서서, 이 모든 풍경이 마치 자기 잘못인 양 미안해하며 서성였다.

민철은 '모두가 불쌍해져 버린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 자기가 뭔가를 해 보자고 생각하였다.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가끔이라도, 될 수 있는 한 일찍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새어머니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는 했다. 이러한 아들의 노력에 부모는 한편으로는 고마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미안해하고는 했다. 하지만 이런 부모를 보면서 민철 역시 견디기 힘들었다. 뭐 좀 잘해 보자고 하면 할수록 더욱 미안해하기만 하니 더 짜증이 났다. 그러던 어느 날 술자리에서 민철은 부모님과 동생에게 불쑥 이런 말을 던졌다.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잘못한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것이 민철의 한 말 '아니예요. 우리들 중 누구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라는 말이 가지고 온 기적이다. 사실 그 말은 민철 자기도 모르게 던진 말이었다. 그런데 이 말이 기적을 낳았다. 집을 겉도는 자식과 조폭이 된 자식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기 탓만 하던 부모에게 민철의 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였다.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 이것은 우리 잘못이 아냐." 아버지는 다시 한 번 당신이 힘을 써보겠다고 결심하셨고 새어머니는 고마움에 말 한 마디 제대로 못 하시면서 끝내 우셨다. 망한 것에 대해 모두가 자책을 할 수 밖에 없는 세상에서 아들이 한 한마디는 식구 모두에게는 구원이었던 셈이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위로도 기대할 수 없는 불행한 삶을 산다. 위로가 되어야 할 가족은 짐이 되었으며, 위로하는 법을 배워야 할 학교와 지역사회는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정글이 돼버렸다. 이런 세상에서 민철이가 아버지와의 화해를 통해 위로하는 법과 위로의 힘을 배운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에 따라 세상이 실제로 변하는 큰 경험이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마라'는 신자유주의의 명령에 맞서는 이런 위로와 돌봄이다.

민철이 이런 위로의 힘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세상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후배들을 꼬시고 비판하고 설득하는 법을 배웠다. 또한 선배들과 몇몇 사회의 어른들을 통하여 시대를 읽고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는 법을 배웠다. 집을 나와 그가 만난 것은 도처에 스승이라는 사실이다. 그들로부터 그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 받았고, 자신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존재이며 그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배웠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철이는 그 위로의 힘을 좀 더 밀고 나가보려 한다. 지금도 성매매 피해 여성의 공동체인 W-ing에 일주일에 한 번씩 자원봉사를 나가고 초록정치모임, 비정규직 노동운동단체 등 몇몇 단체에도 기웃거린다. "학자금 대출 빚이 2,000만원인데 그걸 생각하면 버젓한 직장에 취직해 돈 버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많다." 하지만 당분간은 이 길을 계속 걸어가려고 한다. "내 존재가 확장되고 자유를 끝까지 밀고 가보는 쾌감의 흥분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이란다. 그가 그 자유와 쾌감을 더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어른이 되는 것인가? 집을 나와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만나고, 그 존경할 만한 사람을 따라 자신의 삶에 대한 신념을 가지게 되고, 그 신념을 엄격하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어른이 되는 길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시대가 청년들에게 해주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다시 한 번 분명해진다. 이들이 집 밖으로 나와 세상과 교류하며 삶의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성장할 수 있도

록 하자.

4. 덧붙임: 그렇다면 집을 나와 스승은 어떻게 만나는가?

: 아래의 글은 내가 하자센터의 십대들과 함께 집을 나와 스승을 만나 성장해가는 과정에 대한 작은 한 사례이다. 이 글은 아이들이 집밖으로 나가서 세상과 교류해야하는 이유, 그리고 그 교류하는 과정에서 스승을 만나고 삶이 바뀌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 태국의 불교공동체 산티아속은 태국 국내에 9개의 마을이 있으며 1천여 명의 사람들이 '무소유와 나눔'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 곳이다. 이들은 다른 모든 대안공동체가 그렇듯이 될 수 있는 한 자기네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을 공동체 내에서 생태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한다. 그렇다고 문명의 이기를 거부하고 폐쇄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다. 놀랍게도 하루 종일 방송되는 케이블티브이 방송국과 라디오 방송국, 그리고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매체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가치와 삶의 방식은 공동체 '밖'의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나누면서 배움을 개방하고 있다.

물론 나와 함께 간 아이들은 모두 하자센터나 간디학교 같은 대안학교 출신인지라 산티아속이 만들어 가는 '대안'에 대해 관심이 컸다. 휙휙 둘러보다 너무나 평화스러운 모습에 몇몇 아이들은 성급하게도 '이곳으로 와 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곳이 마을과 학교, 그리고 노동이 통합되어 있으면서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일을 해결하는 모습에 강력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자센터나 간디학교 모두 역시 빡빡한 공교육이나 도시생활에 대한 대안으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돌보며 살아가는 학습생태계로서의 '마을'을 만들려고 크게 힘쓰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한국에서 늘 이야기하던, 배움이 중심이 되는 학습 생태계로서의 마을 만들기를 산티아속에서 실제로 만난 데 들떠 있었다.

산티아속에서는 공동체 전체가 농사를 지으면서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며,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개방한다.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들 농사일을 하거나 미디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공동체 안에서 어지간한 것들은 다 생산하고 될 수 있는 한 그 범위 안에서 소비한다. 마을의 아이들은 학교를 통하여 이 전 과정에 하나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외부에 최소한으로 의존하는 라이 스타일을 몸으로 익힌다. 이 점을 간파한 한 아이는 '애초에 소유에 대한 감수성을 형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다니 매우 대단한 일'이라며 놀라워하였다.

산티아속이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삶을 엄격하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에 있다. 아이들이 산티아속에서 감동을 받은 데에도 역시 우리를 안내해 준 솜차이 씨의 영향이 컸다. 사실 어찌 보면 산티아속은 별로 특별할 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뭔가가 있다.'고 느끼게 해 준 사람이 바로 솜차이 씨였다. 그는 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건축학을 공부하고 LA에서 성공한 건축가로서, 10여 년 동안 '누릴 것 다 누리고' 살다 몇 년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미련 없이 돌아왔다. 라스베가스에서 도박도 하고 머리를 치렁치렁 기르고 마리화나를 피며 거침없이 살다가 엄격한 금욕의 규율 속에 움직이는 산티아속에서 오히려 그는 해방감을 느낀다며 껄껄 웃었다. 이곳에서 솜차이 씨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이자 설거지 담당이고 외부의 손님이 오면 산티아속을 소개하는 투어 가이드이다. 산티아속이 다른 대안공동체와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차이나는 점이 있다면 솜차이 씨처럼 멋진 '고수'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들이 아이들과 함께 노동하고 생활하며 생활 전체를 통하여 아이들을 가르친다.

어쩌면 산티아속의 삶은 고달플 수 있다. 나중에 한 아이는 "평온해지기 위해서 금욕적으로 사는 건데 그렇게 금욕적이면 자동적으로 평온해일까? 만약 그것이 참고 살기만 하는 것이면 전혀 평온한 삶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물으면서, 뭐가 그들을 평온하게 하는지 물었다. 당연히 할 법한 질문이다. 솜차이 씨는 산티아속은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다. 마을에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서 살면 된다. 대신 마을의 규칙인 불교의 5계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도박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면 마을에서 나가야 한다. 각자의 수준에 맞게 공동체와 관계를 맺으면 된다. 자발적 선택만큼이나 엄격함은 중요하다.

솜차이 씨는 "자신이 선택한 것을 엄격하게 따르려는 각오가 없다면 다른 길을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살다가 도저히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그저 물러나면 된다. 이것은 파문하고는 다르다. 마을에 들어와 사는 대신에 마을 주변에 살며 마을에 가끔 와서 설교를 듣고 공동체에 봉사할 수도 있다. 만일 직업이나 다른 일 때문에 도시로 나가 살아야 한다면 케이블티브이와 여러 가지 소식지, 책을 통하여 얼마든지 산티아속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산티아속의 배움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다. 산티아속은 그 안에서 배우는 공동체이고, 그 밖에서는 가르침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이다.

마지막으로 솜차이 씨는 산티아속을 떠나는 아이들에게 "한순간에 되는 것은 없다. 무엇이 되고 싶다면 결단을 내려야 하고, 결단을 내리면 엄격하게 그것을 수행하고 지켜야 한다"며 "너희들은 어떠한가?"를 되물었다. 그리고 솜차이 씨는 산티아속 사람들이 부처가 되기 위해 실천하는 일들이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일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신념을 실천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며 그것이 배움을 나누는 실천이고 산티아속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신념의 실천이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준다는 그의 말은 아이들에게 큰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글로벌학교를 시작할 때부터 활동가가 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을 쉽게 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리 쉬운 일도 아니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일도 아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처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미지는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필리핀에 처음 가서 빈민들을 보면서는 아무 느낌이 나지 않았다. 내가 가진 그림이랑 하나도 안 맞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매솟을 다녀오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버마와 관련된 시위에 시간이 나면 꼭 참석하고, 마웅저 씨가 《프레시안》에 연재를 하는데 그 글을 다듬어 주는 것 등이다. 마웅저 씨가 버마에 라디오를 보내는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 일도 시간이 나면 도와주고 싶다.”

글로벌학교에 다녀온 뒤 리타가 쓴 글이다. 리타는 원래 몸을 잘 안 움직이는 아이였다. 캠프에 가서도 빨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쌓아두기만 해서 결국은 인솔교사가 한 적도 있었다. 그런 아이가 난민촌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활동가들을 만나며 비로소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다. 방콕에서 버마민중항쟁 기념식에 가서 리타는 마웅저 씨와 한국의 활동가들에게 가져다준다며 조그만 리플릿과 전단지 하나도 꼼꼼하게 챙겼다. 난민과 관련된 일이라면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로 진행하는 강연회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혼자서 짧은 영어로 포기하지 않고 질문을 하였다. 타자와의 만남, 그리고 마웅저 씨와 같이 함께 하는 파트너들과의 만남을 통해 윤리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아이의 몸을 바꾸어 낸 셈이다.

윤리적으로 성장했다는 말은 그저 타자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 속으로 나를 밀어 넣는 ‘몸과 마음’의 문제이다. 바우만은 우리 시대의 윤리에서 ‘자유, 평등, 박애’라는 근대적 윤리는 폐기되고 그 자리를 ‘자유, 다양성, 관용’이 차지하였다고 했다. 바우만은 특히 관용이 무관심으로 타락한 것이 우리 시대의 윤리적 위기의 핵심이라며, 그 자리를 연대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용이 고통 받는 타자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태도의 문제라면, 연대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꾸는 문제이다.

놀랍게도 나와 함께했던 아이들은 사회적 약자를 만나면서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연대를 몸과 마음에 새겨 자신을 바꾸어 갔다. 타자가 나의 세계로 들어오고, 그 타자를 보면서 나는 더 이상 정당하지 않음을 알게 되고, 자신의 정당성을 재구축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관용에서 연대로 바꾸어 내는 일이, 작지만 아이들에게 일어났다.

아이들이 감동을 받고 영감을 얻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던 사람들의 활동이었다. 난민촌의 사람들이나 에이즈 감염인들처럼 자신들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어서 도저히 아무것도 안 하고 절망에 빠져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삶의 희망과 활동의 가능성을 보았다. 아이들은 확실히 이 불가능할 것 같은 활동에 매료되었다. 이들을 통하여 아이들은 바로 '가능성이 살아 있음'을 만나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가능성 자체가 도저히 생길 수 없을 듯한, 폐쇄되었다고 믿어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가 종말을 고하는 그런 가능성만 남아 있는 사회 말이다. 가능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 움직일 수 있는 여지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난민촌, 에이즈 감염인 활동단체, 산티아속 공동체였던 셈이다. 아이들은 그곳들에서 만난 엄격하고도 작은 실천, 하지만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그 힘에 압도당했다. "신념의 엄격한 실천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준다."는 솜차이 씨의 말에, 그 말에 걸려 있는 솜차이 씨의 삶에 아이들은 매혹되고 압도당했다. 하지만 그 작은 공간에서 경험한 압도적인 힘은 전 지구화의 거대함마저 누르고, 아이들을 바꾸어 가고 있었다.

새로운 중심이란, 결국 내 안에서 시작된다.

한지섭(25세, 인디고서원)
busan_fish@naver.com

우리는 88만원 세대입니까? 우리는 88만원 세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20대를 88만원 세대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소장 경제학자 중 한 명인 우석훈 박사와 전직 <말>지 기자 박권일씨가 함께 지은 <88만원 세대> 라는 책이 출간되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20대의 생존마저 위협하면서 어느덧 20대는 'X세대', 'N세대', 등과 같은 영어이름을 가진 세대가 아닌 '88만원 세대' 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이름을 가지게 된 지금 우리 20대는 '88만원' 이라는 감옥에 갇히어 이름에서 탈출하고자 발버둥 치고 있다. 더 큰 꿈을 꾸고, 그 큰 꿈을 위해 공부하고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실천해야 하는 젊은 피들은 고작 '88만원 세대' 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 '젊음'마저 '청년'이라는 이름마저도 고작 경제적인 잣대에 의해 평가되고 또 그러한 잣대에 맞춰 자신의 삶이 아닌 타인의 삶을 사는 청년들. 그것은 암울하게 평가된 우리 청년들의 삶에 더욱 큰 어둠을 안겨 준다.

우리는 88만원 세대가 아니다. 나는 우리가 '행복한 세대' 혹은 '정의로운 세대' 라 불렸으면 한다. 모든 기성세대들이 우리를 혹은 세상의 모든 것을 경제적인 잣대로 평가

하고, 우리의 시대를 어둡게 보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경제적인 잣대가 아닌 우리 스스로의 잣대에 맞춰 스스로의 이름을 결정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두운 평가가 아닌 어두움 속에서 또 다른 가치와 희망을 찾고, 그것을 향해 발걸음 내딛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청년인 우리에게는 더 없이 필요한 결정이다.

우리가 하는 활동이 특이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년은 청년이 아니다. 도서관을 가득 매운 학생들의 책상에는 온통 토익, 토플 문제집만이 가득하다. 모두가 똑같은 책을 가지고 사회가 원하는 '스펙'에 맞추어 자신을 키워간다. 고등학생 때 꿈꿔오던 대학의 공부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의 원하는 전공의 수업보다는 기업에서 혹은 사회에서 원하는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자신을 혹사 시킨다. 토익과 토플 점수에 목을 매고,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사회가 원하는 '스펙'을 더 쌓기 위해 자신이 꿈 꿔오던 많은 것을 포기한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공부보다는 타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 대학 강의실 마다 붙어 있는 '커닝 방지를 위한 윤리강령'을 볼 때마다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다. 정의로움 보다는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쳐야만 하는 우리의 모습에 슬퍼진다. 자신의 삶을 살피기보다는 타인의 시선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젊음의 시절에 가슴이 저려온다.

대학은 대학이 아니다. 대학들은 서로 앞 다투어 자신들의 교육 과정이 기업에 입사하기에 더 좋은 과정이라 광고를 한다. 외국인 학생이 많으니 글로벌화 된 대학이라 광고를 한다. 어떤 대학은 공무원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하여 스스로를 '공무원 사관학교'라 부르기도 학교 어떤 학교들은 앞 다투어 취업률을 내 새우며 자신들의 우수성을 광고한다. 청년의 푸른 꿈을 키우고, 더 큰 꿈을 품도록 보듬어야 할 '대학' 이라는 공간 역시도 이제는 취업을 위한 '학원'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대학에서 우리 청년들은 작은 꿈, 그마저 기업이 원하고, 사회가 원하는 모습으로 깎아야 한다.

친구들은 나에게 묻는다.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왜 토익, 토플 공부는 하지 않고 책을 보냐고, 왜 취업에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활동들을 하냐고, 스펙이 될 만한 활동은 하지 않느냐고 나에게 물어온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대답한다. 처음에는 그런 나를 비웃었지만 이제는 그런 나를 친구들은 다시 본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두가 똑같은 모습이 되어가는 것을 인지하고, 그 속에서 조금이나마 다른 생활을 한 친구들을 보고는 조금씩 부러워한다. 나는 특별하지 않다. 나는 청년으로써 단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꿈꿔오던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대안'이 아니다. 청년들의 바람직한 모습도 아니고 대안적인 모습도 아닌 그저 내가 꿈꿔오던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이 꿈꿔온 삶은 존재한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은 자신에 대한 믿음보다는 사회의 기준에 맞춰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특이해 보이는 사회. 남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사회가 정해진 기준에 맞춰

젊음을 보내야 하는 사회. 그것이 지금의 사회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냥 나는 나의 '삶'에 충실하고 싶다.

나의 삶, 인디고의 삶을 소개합니다.

인디고 서원, 꿈을 살아가는 인문학 공동체

2004년 8월 28일, 쪽빛 바다 푸른 향이 불어오는 부산, 남천동 골목에 자리한 인디고 서원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인디고 서원의 자유로운 공동체는 그동안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다. 때론 고통스러운 의무라 느낄 때도 있었지만 이 공동체에는 주인이 따로 없기에 모두 자유롭게 각자의 본성을 일상의 구체적인 삶을 행복하게 실현해왔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순간들을 만나게 해주었다. 그것의 넓이와 깊이는 이제 세계와 만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창조적 열정으로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 작은 혁명가들이 여기 있다. 진실과 정의, 용기와 순수를 가진 이 혁명가들이 꿈꾸는 세상은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사랑과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에코토피아이다.

그러나 이 젊은 혁명가들은 일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일은 놓치지 않는다. 지금 옳다고 생각한 바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이들의 혁명 방식이다. 각자의 삶의 장에서 배움과 소통의 장들을 만들어내고 그 아름다운 연대를 통해 이들이 꿈꾸는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은 더디게라도 반드시 올 것이다.

아름다운 영혼들의 자유로운 공동체, 인디고 서원

인디고 서원은 2004년 8월에 문을 연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이다. 인디고 서원의 서가에는 '문학, 역사·사회, 철학, 예술, 교육, 생태·환경' 6가지로 분류한 서적들이 빼곡히 들어있다. 하지만 자습서나 대형 출판사의 마케팅 전략이 만든 베스트셀러는 없다. 글로써 사람을 키우는 인문학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청소년들의 내적 성장에 자양분이 되는 좋은 책들을 선별해 놓은 책방이다. 인문학의 중요성을 새삼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무엇보다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분야임에도 한국에서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제가 청소년 시절 꿈꾸던 공간이 어른이 되어서도 존재하지 않아 제가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일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인디고 서원은 책과 청소년을 잇는 고리로서 다양한 인문학 행사를 열고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책과 잡지도 출간한다. 인디고 서원이 언제나 이 땅의 청소년들이 건강한 책 읽기를 하며 꿈을 키우고 인문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장(ground)이 되길 바란다.

주제와 변주, 이 시대 좋은 어른들과 진실한 사유 나누는 소통의 장

2004년 8월부터 지금까지 39회를 진행한 '주제와 변주' 는 진지한 책 읽기를 통해 청소년들이 만나고 싶은 책 속의 저자를 직접 선정하고 초청하여 진지한 사유를 나누는 장이다. 진실한 시간 속에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치열한 실천을 다짐하기도 하는 이 행사는 청소년들이 시대의 어른들에게 적극적으로 말 걸고 함께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는 소통의 자리로 청소년 교육을 고민하는 선생님들, 인문학을 사랑하는 전국의 일반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인디고 서원의 주제와 변주는 대형 서점의 저자 사인회나 강연과는 달리 지역에서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작고 소박하지만 진실을 알고자 하는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자리이다. 매 달 읽었던 책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책의 저자들에게 학생들이 직접 초대 메일을 쓰고 선생님들을 모신다.

그 동안 다녀가신 선생님들과의 토론을 정리해서 이미 두 권의 책으로 묶어냈다. 이제 전국 어디에서라도 주제와 변주에 참여할 수 있는 초청장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공휴일이나 주말에 행사를 진행하면서 참여 학생들은 날마다 늘어간다. 세 시간 동안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은 단 한 순간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진지하고 사려 깊게, 겸손하게 저자와의 토론에 열중합니다. 오시는 선생님들은 모두 인디고 서원에 온 걸음이 헛되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토론 자세에 감탄과 경이를 표한다.

행복한 책 읽기 하는 아이들, 책으로 혁명하다

인디고 서원의 청소년들은 삶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서부터 당대의 사회, 문화, 역사적 문제들을 아우르는 토론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더 많은 학생들과 넓고 깊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오랫동안 꿈꿔왔습니다. 진실한 인간관계와 진정한 소통이 드물어진 이 시대에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또 무엇이 행복한 삶인지에 대한 성찰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디고의 청소년들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그렇게 꿈꾼 세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주체가 되고자 했다. 지금은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단단하기만 한 세상의 모순된 벽을 깨부술 수는 없지만, 그 벽의 조그만 틈사이로 보이는 진실을 향해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그 진실에 닿아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 그런 작은 혁명을 이루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던 청소년들은,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 책이 『창조적 열정을 지닌 청소년,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다』,

『토토, 모리를 만나다』, 『인디고 서원에서 행복한 책읽기』라는 세 권의 책이다. 인디고 서원의 좋은 책을 읽고 공부한 청소년들이 직접 또래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가장 좋았던 책을 추천하고 허아람 선생님과 함께한 아름답고 행복한 수업시간을 담아낸 책이다. 강요된 책 읽기가 아닌 행복한 책 읽기와 인문학 교육이 아이들의 자아와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볼 수 있다.

인디고의 영원한 현재진행형, 청소년 인문교양지 <INDIGO+ing>(인디고잉)

인디고 서원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인문교양지 <INDIGO+ing>(인디고잉)을 2006년 8월 28일에 창간발행(격월간)하고 있다. 인디고잉은 행복한 책 읽기를 통해 건강한 사유를 키우는 청소년들이 보다 더 넓은 사회와 세계 속에서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고 자발적인 실천을 통해 시대적 변화를 창조하고자 만든 청소년 인문교양지이다. 지금까지 격월간으로 17호까지 나온 인디고잉은 이제 훌륭한 지역 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었고 세계적인 석학들의 기고로 신문 1면을 장식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이 모든 과정을 청소년들이 직접 해낸다는 것이다. 기자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공교육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평범한 학생들이다. 단지 그들은 남보다 더 깨어있고 최선을 다하고 더 절실히 절박하게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문제들을 글로 쓴다.

이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전 세계 청소년들과 네트워크 하고 있는 중이며, 인문학적 가치를 공유하고자 네팔 청소년 국제잡지 <Today's Youth Asia>와 함께 20여개 국에 배포되는 영어판 <INDIGO+ing>을 발행하기도 했다.

참다운 교육과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연대하는 곳

또한 인디고 서원에서는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 세계와 소통하다(청소년 인문학 토론 행사)', '열두 달 작은 강의', '수요독서회', '인디고 위크' 등 책을 좋아하며 참다운 교육과 삶을 꿈꾸는 많은 청소년 및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인문학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 세계와 소통하다'는 '아름다운 재단' 후원으로 2007년 5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인문학 토론행사로 매회 인디고 서원에서 선정한 주제 아래 EBS지식채널ⓔ 프로그램을 보고 토론한다. 토론수업을 통해 내적 성장을 경험한 인디고 청소년들이 또래 청소년들과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 행사로 자신의 성장에 국한하지 않고 소통과 나눔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다.

책에서 배운 내용들을 끊임없이 삶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인디고 청소년들과 인디

고 서원은 오늘날 파괴된 생태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먹거리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채식식당을 기획하고 열었다. 생협, 한살림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깨끗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작은 혁명가를 위한 작은 식당-에코토피아> 는 인디고 서원의 교육 취지에 공감하는 학부모님들의 자원 봉사로 운영되며 수익금은 인디고 서원이 연대하는 네팔의 타나훈 지역 학교 도서관 건립기금으로 쓰인다.

꿈을 사는 젊은 이상가들의 아름다운 별자리, 인디고 유스 북페어

'2008 인디고 유스 북페어'는 청소년들이 책을 통해 공부하고 꿈꾼 이상을 국내 안에서 소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 세상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실천가들을 직접 찾아 교류한 장이다. 2006년 1월 청소년, 청년들로 구성된 인디고 글로벌 인문학 프로젝트 팀을 발족하여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기존의 상업적인 교류·자본 중심의 북페어를 거부하고, 인디고 청소년들이 직접 찾아낸 전 세계 6대륙 6개국의 작가를 초청하여 교류하는 진실한 소통의 장이다. '인간(human, 人+間)'이라는 키워드를 모든 시도의 근간으로 삼아, 전 세계 6개 대륙을 인디고 서원의 6개의 서가 분류인 문학, 역사/사회, 철학, 교육, 예술, 생태/환경으로 재배치, 새로운 국경선과 지도를 만들고자 했다. 현재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가난, 기아, 빈곤, 폭력, 전쟁 등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이 시대를 대표할 만한 작가, 사회운동가, 예술가 등을 발굴하고, 지구 반대편의 청소년들도 함께 이곳 한국으로 초대하는 새로운 전 지구적 소통의 장이 된 것이다. 어떤 교육의 장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형식의 인문학 배움터에 전국의 청소년 및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한 인간의 삶이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창조적 실천가들과의 만남과 인디고 서원 청소년들의 꿈이 단긴 책, 『꿈을 살다-젊은 이상가들, 세계의 창조적 실천가들을 만나다』(박용준과 인디고 유스 북페어 팀, 궁리)를 작년 7월 출간하기도 했다. 인디고 유스 북페어는 2008년을 첫 시작으로 2년마다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북페어가 도서의 판권을 거래하는 자본의 시장으로 전락해버린 것에 반대하며, 진정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책 속 가치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사랑의 공동체, 그 존재의 중심을 재건한다
- 인디고 연구소 'InK'

"사랑은 존재의 중심을 재건한다." - 존 버거
"각자의 삶은 어떤 중심으로 수렴한다." - 에밀리 디킨슨

인디고 그라운드에서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재발견과 반성, 그리고 변화이다. 삶의 다양한 순간에서 발현되는 자신의 행동들, 그 행동들을 결정하는 자신 내면의 근원적인 존재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면, 많은 경우 그 존재 방식은 내가 스스로 세운 것도 아닐뿐더러 그 때문에 스스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토대로 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반성은 '그렇다면 내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연결되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공부하기 시작한다. 책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발견하면 이제는 그 가치들에 근거한 새로운 존재 방식을 꿈꾼다. 그리고 그 꿈꾸는 존재 방식을 자신의 일상에서 실현하려고 치열하게 투쟁한다. 이 같이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반성하고, 변화시켜나가는 과정은 결코 혼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디고 그라운드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각자의 개인의 변화는 물론,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연대하여 공동체를 형성해 나간다.

이번에 새롭게 탄생한 <인디고 연구소>는 이러한 개인의 성장과정을 인디고 그라운드라는 공동체의 장에서 적용시키고자 탄생되었다. 즉 <인디고 연구소>는 인디고 그라운드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활동들, 그 활동들이 수렴하는 인디고의 중심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치를 다시 인디고 그라운드의 여러 활동들에 적용시키는 역할도 할 것이다. 개인의 삶이 그러하듯, 인디고가 추구하는 가치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동체의 주체들에 의해서 더욱 발전되어야 할 것이며 그 가치가 각각의 활동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공동체의 끊임없는 존재의 중심의 재건이야 말로 그 자체로서 살아있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이며 그 근원에는 물론 구성원간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 흐르고 있을 것이다.

인디고 서원은 척박한 교육 환경에 놓인 이 땅의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생명 감수성으로 삶과 자연을 사랑하고 우리 사회의 뼈아픈 문제를 비판적으로 통찰하며 나아가 전 지구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쓸모 있는 지식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교육의 장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세상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킬 청소년들이 비판적 지성과 따뜻한 감성을 지닐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열어낼 것이다. 또한 진지하고 깊은 사유를 키우는 좋은 글을 담은 책과 잡지를 통해 꿈꾸는 청소년들을 응원할 것이다. 더불어 사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인문정신을, 오늘을 살아가는 세계의 창조적 실천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소통하고 구현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중심이다.

"지역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 자체가 세계적인 것이다." – 반다나시바

많은 사람들이 '중앙'과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오로지 경제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그대로 똑같이 저지르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중앙'을 낳는 것이다. 오로지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쫓다보면 다른 부분들은 무시된 채 경제를 위한 생태, 경제를 위한 예술, 경제를 위한 철학 등 본 분야의 순수성을 잃을 수 있다. 우리가 이토록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을 쫓아가게 된다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덜 발전되어 더 가치 있어 진 것을 잃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중앙'과 '지방'의 문제가 아니다. 변화와 창조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만드는 환경이다. 스스로가 얼마만큼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중심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서 무엇을 창조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중심이 되는 길이다. 그리고 또한 기성세대들이 지어놓은 '지방'과 '중앙'이라는 억압과 열등감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움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중심이란, 결국 내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Ⅳ. 참고자료

1. 청년이 말하는 '2009 한국청년 의제'
-'한국청년 새 이름 찾기' 응모 답변을 중심으로-

'88만원 세대', '이태백', '공시족'... 2009년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붙여진 우울한 이름들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정신적 상실의 세계화 속에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하려는 청년들은 취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며 설 자리를 잃고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래는 20대 네뷔네트워킹센터 희망청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2009 한국청년 새 이름 찾기>**에 응모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은 '2009 한국청년 의제'입니다. 공모의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09년 청년문제 가운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는 무엇이고, 왜 그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풀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숙제에 '대중의 지혜'가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청년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힘은 청년을 포함한 사회의 이해당사자들 간 대화를 통한 '소통과 연대'에서 나옵니다. 여기 모인 청년의 지혜가 현실에서 실현되기 위해 지금, 여기에서 우리부터 시작합시다.

<청년이 말하는 '2009 한국청년 의제'>

Ⅰ. 청년문제! 현황과 원인을 뒤집는다.

1. ‘신(新)세대’가 아닌 ‘신(神)세대’? - 극심한 사회적 경쟁

요즘 청년은 ‘신(神)세대’이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력, 학점, 봉사활동, 어학능력, 인턴 등의 다양한 경험을 비롯해서 정말 못하는 것이 없어야 하는 완벽에 가까운 신(神)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젊은이들이 젊고 새롭단 이유의 신(新)세대였다면, 요즘 젊은 청년들은 모든 분야를 섭렵하고 다재다능한 신(神)이 되어야 하는 신(神)세대가 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혜민/여/1988)

저는 지금 대학교 2학년이지만 군대도 가기 전부터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취업준비로 각종 공모전 참여, 토익점수, 해외봉사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이 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허종하/남/1990)

2009년 한국 청년은 하루 25시간 세대다. 자신의 스펙을 높이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하루 24시간도 모자라다는 뜻이다. 학벌, 학점, 토익, 자원봉사, 공모전, 자격증 등 해야 하는 해야만 하는 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스펙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청년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를 오히려 빼앗아 가는 것 같다. (권재민/남/1983)

저는 100명이 수강하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중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열정적이고 힘찬 대학생활이 우울한 대학생활이 되어가는 것 같아 슬펐습니다. (이영민/남/1984)

청년들이 석차, 순위 없이 생활하는 날들이 얼마나 될까?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까지 청년들은 자신들이 순위화 되는데 익숙하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러한 랭킹에 좌절하고, 낙담하면서도 더 좋은 랭킹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을 가꾸고 더욱 열심히 공부한다. 사회가 청년들을 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이다. 그냥 보이는 대로 보면 될 것을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통해 순위를 매기고 줄을 세운다. (강혜은/여/1989)

지금 제 눈에는 그러한 어른들의 말을 당연시 여기며 명문대에 진학하랴, 공무원 준비하랴, 대기업 취직을 준비하랴 분주한 청년들이 자신의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억지로 어른들의 뜻에 맞춰 살고 있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박서희/여/1992)

2. 행정인턴, 보람 있게 배우며 일하는 사람 손 들어봐 - 정책 미스매치(miss match)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청년들의 족쇄를 풀어주기에는

부족하다. 일자리 나누기란 거창한 이름 아래 단기적인 효과를 누리고 경제의 회생에 기대를 마지않는 졸속행정은 그 누구에게도 달갑지 않은 것이다. (권재민/남/1983)

'취업난'은 '인턴'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절대. 인턴알바생만 양산하는 정부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쏟아지는 '인턴'일은 실제로 배울 것도 없는 일이고, 경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시간낭비에, 인력낭비이고, 젊음의 낭비이다. 알바생 양산은 정부에서 나서지 않아도 충분하다. (이원경/여/1984)

공공기관의 행정인턴들이 맡는 단순한 기본 잡무들은 행정인턴들의 업무숙련도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 계약기간 만료시점 후 분명한 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어 인턴들은 조직 내에 스며들지 못하고 겉도는 신세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최현애/여/1983)

3.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이 기댈 곳 어디에 - 자존감, 존재감 상실

내 주변에도 청년실업이 심화되면서 평소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잘 웃고, 활발한 모습을 보였었지만, 오래된 취업의 실패 속에 자신감을 잃으며 대인관계조차 회피하는 사람도 있다. (정훈진/남/1982)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사회로 내딛는 첫 걸음. 화려한 환영 속에서도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 우리는 "거절"을 첫 인사로 맞는다. 이력서를 여러 곳 제출해도 우리가 듣는 건 거부의 화답뿐..이에서 오는 좌절감, 무기력감, 자학, 우울증은 극단적으로는 자살로까지 이어지고, 한 번 상실된 자신감을 극복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정해림/여/1987)

주위에 31살이지만 아직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여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형이 있습니다. 그 형은 정말 진지하게 살아갈 의욕을 잃어가고 자기가 왜 사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너무 깊었습니다. 친구 중에도 역시 졸업한지 3년이 지나도 취업을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들은 정말 취업이 안 되면 목숨까지 끊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훈/남/1983)

요즘 청년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목숨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연을 쉽게 끊어버리는 자살이다. 특히 요즘같이 이태백이 판치는 시대에는 세상에 대한 불만과 자신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가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혼자 견뎌 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진심어린 충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단순히 일회성 캠페인이나 공인을 내세운 행사보다는 사회 구석구석 관심을 가지고 인간미 넘치는 이웃사촌의 옛 정을 되살려서 하루 속히 그늘(자살문제)을 걷어내고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청

년들에게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찬 사회를 선사하자. (최윤선/여/1985)

오늘날의 청년들의 모습도 결국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자존감 부족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의 부족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꿈을 이루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홍호선/여/1986)

Ⅱ. 우리 함께 가요! 청년이 살맛나는 세상으로.

가. 일자리 관련 정책

1.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자!

각기 분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박유라/여/1985)

최근 IMF때와 달리 창업에 대한 담론이 부족하다. 특히 청년 창업은 더욱 그렇다. 청년만이 할 수 있는 새로움과 도전에 초점을 맞춰 사회는 청년들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주목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청년들에게 지속불가능한 일자리만 제공하는 인턴직 대신 청년들의 창의적 사고와 이를 실현 가능토록 지원해줄 창업을 위한 공적자금 마련이 시급하다. (최현애/여/1983)

2. 단기처방보다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고민하자!

실제로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대다수의 인턴들이 해당기업에서 실무 관련 업무는 다루어 지지 못하고 복사하기, 커피타기, 청소하기 등등 전혀 관련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턴은 말 그대로 준비단계에 있는, 완벽한 업무를 수행하기 전 학습단계에 있는 직원을 말합니다. 해당업무에 익숙해지면서 사회생활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진정한 인턴제가 실시되었으면 합니다. 인턴은 아르바이트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양승권/남/1985)

정규직 채용에 직결되지 않는 인턴을 위해 고급인력이 무보수 또는 최소한의 보수와 여건 하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보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 업무를 거의 무보수로도 해주겠다는 인력들이 넘치니 기업 입장에서는 인턴을 마구 채용하는 실정이다. 알맞은 곳에 알맞은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임혜정/여/1986)

최근 많은 청년들이 대부분 대기업으로만 그리고 편한 직장을 구하려고만 한다. 자기의 꿈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자기의 꿈을 찾아 열정을 불태웠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대학, 기업이 함께 협력을 맺어 형식상이 아닌 실제

적으로 도움과 행동이 따르는 정책이 있었으면 한다. (채세원/남/1984)

나. 사회제도 변화

1. 청년이 자신감과 희망을 찾는 프로그램을 장려하자!

저는 제가 참가했던 카네기 리더십 캠프나 해외 봉사나 포럼처럼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 용기,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고 또 청년들에게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면 이러한 문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나리/여/1987)

2. 컴퓨터 너머 세상 밖으로! 손과 발로 뛰며 삶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자!

많은 체험의 기회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생각만으로 나의 꿈을 설계하는 것보다 내 발로 내 손으로 오감으로 맞닿고 느끼고 말하고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회 확장과 그 같은 프로그램 정보를 좀 더 가깝게 소통하여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꿈을 쫓아 달릴 것입니다. (김인혜/여/1986)

다. 교육 개선

1. 등록금, 내리고! 장학금 기회, 확대하고!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은, 대학의 예산 공개와 국가적 차원의 대학생 혜택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선적으로 대학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기 위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최수정/여/1987)

연 1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으로 졸업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현실에서 졸업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기에는 대학시절 생긴 빚이 발목을 잡습니다. 스스로 아르바이트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해결할 수준으로 등록금이 내려간다면, 대학생활 중, 그리고 졸업하고 좀 더 많은 책을 읽고, 연극을 보고, 여행을 다니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화영/여/1984)

2. 다양한 방식의 직업탐색과 창조적 직업교육

창조적 자기 개발능력을 고양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꿈과 열정을 찾아주고 목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과 카운슬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에 어떠한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업 모델 연구와 창조적인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들을 든든히 지원해야 합니다. (신혜

정/여/1982)

서류통과 하려고 스펙을 열심히 쌓았건만 정작 회사는 요즘 구직자들 창의성이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청년들의 창의성을 빼앗았을까요. 회사랑 함께 자라고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분출하는 개성만점 신입사원이 스펙에 눌리지 않게 회사들이 젊은 청년들에게 즐겁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형화된 사고보단 열린 사고 경제위기를 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윤난희/여/1986)

3. 교육, 능동적이고 자립적인 참사람을 키우는 숲이 되자!

기존의 교육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이 청년들은 현 체제에 불만을 품으면서도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현실에 순응하며 삽니다. 순응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순응'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순응'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현 체제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정치적인 문제에 무감각해지고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지 못한다면 고인물이 썩듯 한국 사회는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주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순응적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이 정상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그루/남/1991)

4. 생각하는 힘, 사색의 기회를 보장해 달라!

자유롭게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색할 기회를 보장해 달라! 삶에 대해 고민하고 열정으로 도전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를 가진 청년에게 이 기회를 암묵적으로 박탈해버리는 지금의 사회구조가 대학을 학문을 추구하는 공간이 아닌, 취업훈련공장으로 변모해가는 지금의 슬픈 현실을 바라보며 고시공부, 취업준비에 치이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기회를 달라 외치고 싶다.
고용, 실업문제 해결 보단 학문을 하는 공간에선 진정한 학문을 추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청년은 자아를 형성하는 시기이지 사회재화 생성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 온힘을 다 기울여야 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요즘 젊은 세대는 사고하는 능력이 없어졌음을 비판만 할일이 아니라, 왜 그들이 세상에 대해 생각할 힘을 잃어가게 되었는지 지금의 사회구조가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강선구/여/1985)

라. 사회인식 개선

1. '대학교수'와 '경비아저씨'의 노동가치는 다르다? -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세상에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특정 분야의 사람들만을 선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그 특정 분야에서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지요. (박서희/여/1992)

모든 직업이 평등하다면, 적어도 후대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싶다면 직업의 개성,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하게 홍보해 주었으면 한다. 미래의 주역들에게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부탁하려면 기성세대들은 '내 자식만은 이 정도는 해야 해'라는 치맛바람을 없애고 숨어있는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다양한 직업에 대해 색안경을 끼지 말고 그들만의 관심 영역에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한다. (권재민/남/1983)

2. 너의 행복과 나의 행복은 연결되어 있다 - 청년들의 자발적인 연대의식

2009년 대한민국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연대의식입니다. 실업난도 커다란 문제이지만 그것은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연대의식과 공동체 정신은 나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의 처지에 아파할 수 있고, 타인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람의 고통이 결국 나에게 영향을 미침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행복을 위해 대신 나눠 줄 수 있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안녕을 기원할 때 2009년 대한민국이 희망찬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권윤정/여/1982)

마. 자아 찾고 꿈 찾기

1. 나의 본질과 마주하고 진짜 나를 찾자! - 자아 찾기

많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나를 제대로 모른다"는 것 입니다. 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세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동적으로 인생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등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이 우선시되는 사회풍습이 서야 청년실업문제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혜림/여/1986)

2009년의 청년문제 가운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자아를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들은 극심한 취업난 속에 '나도 도태되어 버리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을 안고 다른 것은 생각도 못한 채 취업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으로 쌓아지는 현실이 나중에 제대로 된 미래를 만들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청년들에게 한 박자 천천히, 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희윤/여/1988)

2. 우아한 노예가 될 것인가 자유인이 될 것인가? - 주체성과 자립심 키우기

청년들의 주체성과 자의식 결핍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것이 비난받지 않는, 그래서 청년들이 더 다양성을 갖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행복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체적이고 깨어있는, 미래를 이끌어갈 건강한 청년이 될 것입니다. (김이수/여/1990)

이 시대의 청년들은 누군가의 지시에 따르는 방식에 익숙한 나머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을 느낀다. 확실하지 않은 일에 도전하는 것에는 지레 겁을 먹고 회피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수동적인 자세와 모두가 획일화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들과 비교해 같아지려 하는, 겉모습에서부터 심지어는 꿈(직업)마저도 같아져버린 행태를 비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실에 대한 복종이 아닌 이상을 가져야 한다. (이정아/여/1987)

사람은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취업을 하려고 해도, 공부를 하려고 해도.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면 실천으로 이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의지가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형/남/1990)

3. Follow your bliss -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 찾기

주변 친구들을 붙잡고 물어보아도 자신의 꿈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이고 그저 살기위한 취업만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꿈이 뭐에요?" 입니다만, 자신의 진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반도 되지 않습니다. (김인혜/여/1986)

청년실업은 청년들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해서 자신들의 다양한 길을 찾기 보다는 좁은 문에서 여러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무조건 어딘가에 취업해야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청년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직종에서 청년들이 보다 나은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합니다. (김다은/여/1986)

현재 청년들의 최대 문제는 '취업'이지만 한국 사람들의 취업에 대한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 돈을 잘 벌고 가능한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의 청년들은 돈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고,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열정과 자부심을 갖는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돈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일 뿐, 자기가 열정을 갖는 일에 만족한다. 이처럼 우리도 자신이 진짜 '원하는' 일을 찾고, 직업에 대한 인식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야할 것이다. (임정아/여/1989)

취업, 빨리 돈 버는 것을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가장 추구하는 가치는 어떤 것인지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 누구나 강조하는 스펙을 쌓는데 열을 올릴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자신이 하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맹목적인 스펙쌓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정아/여/1987)

4. 대신할 수 없는 존재의 대신할 수 없는 삶의 방식 - 스스로 창조하는 나의 직업

‘스핑크쓰 세대: 스스로 핑크빛 미래를 쓰는 세대.’ 기성세대와 사회는 더 이상 청년들에게 핑크빛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더 이상 의존할 곳 없는 청년들은 창조적인 삶의 모델을 스스로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1인 창조기업 등 가치와 일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시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어진 대로 살지 않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젊은이들이 진짜 청년 아닐까요? (신혜정/여/1982)

구직하고 싶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그 일자리 청년들 스스로 만들면 어떨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닌 내가 만들어서 내가 제일 잘하는 일 바로 "온리원" 정신이 지금 바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청년들이 스스로 창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취업 자격을 청년들 스스로 깨서 자신만의 매력으로 무작위 지원이 아닌 맞춤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나’를 위한 직업을 청년들 스스로가 찾는다면 회사의 직원 채용 기준 및 평가 방법도 다양해 질거라 생각됩니다. 지구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탈탈 털어도 나랑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내세우는 당당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난희/여/1986)

5. Think outside the box -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킨 대안 찾기

‘상자 밖(think outside the box) 세대'. 좋은 직장을 얻어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사고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는 box 안의 시대는 갔습니다. box 안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모두가 box 안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box의 경계는 필요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결국 그렇게 만든 것은 우리입니다. 이제 box 밖으로 눈을 돌릴 때입니다.
요즘의 20대를 보면 현실과 꿈 사이에서 별다른 갈등 없이 현실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경찰행정학과 출신이지만, 현재는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하고 있고, 유스클립이라는 대학생 NPO단체에서 일하고 있으며, 병원 사회사업실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략)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도대체 꿈이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이지요. 한 눈 뜨고 꿈꾸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눈으로는 이상을, 다른 눈으로는 현실을 보라는 말입니다.

이상만 쫓는 것도, 현실만 쫓는 것도, 다 바보입니다. 중요한건 현실을 인정하되 그 안에서 이상을 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삶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이정규/남/1987)

6. 위기를 기회로 - 가치전환과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삼고 도전하기

'변곡점[point of inflection: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자리를 나타내는 곡선 위의 점]세대'. 세계 경제 위기, 청년 실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금, 위기는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경제가 오로지 돈을 위해 인간과 환경을 해치고 희생하는 경제에서 방향을 바꿔서 인간과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로 갈 수 있는 선택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힘이 들지만, 지금 이 시기를 잘 보낸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화영/여/1984)

2. 제6차 유네스코 청년포럼 준비회의록

I. 회의 개요

1. 일 시: 2009년 3월 30일(월)15:00~18:00
2. 장 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8층 회의실
3. 참석자: 총 13명

가. 전문가 (7명)

- 고재열 시사IN 기자
- 권경우 문화사회연구소 연구기획실장
-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계조사연구실 연구위원
-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SERI) 거시경제실 연구원
- 심상달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 기업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원창수 한국YMCA연맹 대외협력팀 팀장
- 이명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팀장

나. 청년 (3명)

- 김동희 취업준비 청년
- 박미현 Touch 4 Good 공동대표
- 이재형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3명)

- 이선재 청년팀장

- 정용시 청년팀
- 김지인 청년팀

II. 회의 내용

1st Session: 청년문제 현황 진단

1. 회의 개시

- 오늘 준비회의 자리는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모였다.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합일점을 못 찾을 수도 있다. 청년문제는 사회 문화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경제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위원을 모신 이유도 더 전반적인 관점으로 사안을 보기 위해서이다. (이선재)
- 유네스코한위는 반관반민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 민과 관에서 모두 참석할 수 있다. 오늘은 준비회의이므로 유네스코한위가 이 포럼을 개최하는 것이 적절한가, 또한 어떤 문제를 이야기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이선재)
- 유네스코한위가 포럼의 장을 엶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정책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관계자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답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답을 제시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선재)

2. 청년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인식

- 먼저 청년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인식이 궁금하다. 각자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청년에 대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다. (이선재)
- 어느 세대든 불황을 맞는 세대는 문제가 커질 수 있는데 지금 청년 세대는 그야말로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들은 사춘기에 IMF를 겪어서 어린 시절에 경제 위기의 원형이 형성이 되었다.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몰락에 대한 인식이 형성된 상태여서 미래에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대학생활도 열심히 했다. 취업과 스펙에 유리한 활동을 하고, 심지어 여행을 가도 레바논, 스리랑카처럼 독특한 곳을 선택한다. 그런데 딱 준비해서 나왔더니 88만원 세대이고, IMF의 트라우마가 자신의 현실이 되어버린 세대인 것이다. 그런 이중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떤 나라보다 조용하다. 집회 한번, 촛불시위 한번 한적 없는 사실에 대해 고맙기까지 하다. 이들 세대에 대한 인식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재열)
- 지금 언론이 계속해서 청년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본격적으로 다룰까요, 아니면 일종의 유행으로 번졌다 끝날까요? (이선재)

- 보수매체는 문제의 돌파구와 적용 가능한 사례를 찾는 반면, 진보언론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해 “또 하나의 미국산 쇠고기다. 싸고 질 나쁜 일자리다.” 라고 표현한다. 전혀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데는 같은 입장이었지만 더 나아간 2라운드에서는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고재열)
- 실업문제는 전 부처의 공통된 해결책으로 논의되고 있어서 너도나도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 한시적인 대응이므로 한계가 있다. 반면 청년들을 담당할 수 있는 부처는 없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부분 관련 부서가 없어졌고,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보건복지부로 통합되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되었고, 핵심대상이 바뀌어서 더 어린 연령으로 포커스가 옮겨졌다. 노동부 또한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곳인데 청년이 핵심대상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김기헌)
- 부처들이 IMF 이후에는 고용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고용의 선행단계가 진로개발이라서 확대하고는 있지만 어떤 한 곳도 책임을 지는 곳은 없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정책적 대응의 방향과도 관련이 있다. 모든 부서가 달려드니 한시적인 정책만 제시할 뿐이지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해결책의 부재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청년 인턴제는 지극히 한시적이다. 괜찮은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것이 중요한 장기적인 정책인데, 이런 것들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우려되는 점이 많다 (김기헌)
- 한위에서도 준비를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도대체 누가 정부의 대표 주자냐는 것이다. 올해 포럼을 할 때도 우리가 정책적 제안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부 쪽 대표주자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선재)
- 취업준비를 하면서 다이어트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면 다른 이유들이 많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 자신의 의지 박약이라 생각한다. 취업이 안되면 친구들끼리 연락 안하고,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취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사회적으로 낙오되고 있다는 기분을 느낀다. 친구들을 보면 유형이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친구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빠져서 공동체로 가서 칩거생활을 하는 경우도 보았다. 또 다른 유형은 혼자서 방에 틀어박혀서 은둔형 외톨이의 형태로 지내는 것이다. (김동희)
- 현재 취업준비기간이 얼마나 되었나? (이선재)
- 6개월 정도 되었다. (김동희)
- 평균취업준비기간이 1년 2개월인 것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다. (김기헌)
- 오래 전부터 사회와 학생은 이미 분리되어 있었고, 취업이 그 둘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연결통로였기 때문에 청년소외 문제는 예전부터 존재했다고 생각한다. 청년실업의 문제가 경제불황과 맞물려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청년들은 ‘내가 잘 하면 돼, 스펙 열심히 쌓고 해외 나갔다 와서 내가 노력하면 돼!’ 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아도 경기를 부양시키는 대응책을 내지 않는 이상 학생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재형)

3. 청년 세대의 현황 (key word: 스펙 쌓기)

- 시장경제를 주도하고 계시는 KDI, SERI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선재)
- 실제로 스펙이 청년들을 고용하는데 기준이 되나? 기업인의 입장으로서 어떤지? (원창수)
- 2년 전쯤, 신입사원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서류가 정말 화려하더라.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철저한 자기 관리에 인턴, 봉사활동, 공모전 등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한다. 우리 땐 그냥 졸업이 다였지만 현재는 그런 것이 정형화 된 것 같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더 이상 큰 신호효과가 되지는 않는 것 같다. (손민중)
- 한 지인이 서류와 면접을 거쳐 선발을 해놓고 보니 여학생들의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하더라. 대학생활도 성실하고, 실력도 우월해 준비가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그렇게 뽑아도 직무능력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채용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다. (손민중)
- 기업입장에서는 솔직히 청년 인턴을 받기가 싫다. 연구소에서 근무하는데 청년인턴을 붙이면 직무를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안되니 일을 시켜도 복사나 문서수발 정도지 현장의 업무를 배우기에는 버거운데 사실이다. 현장감과 괴리가 있다. 이건 마치 헬리콥터에서 돈을 던지는 수준의 정책 중에 하나일 뿐이다. 청년들이 좋은 준비를 해서 청년 인턴제 안에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차라리 그 예산을 개인 구좌제로 돌려서 100만원씩 주지. 중소기업 현장에 가서 견학을 하던지 어학당에 가서 영어공부를 하던지.. 자율성을 주는 정책들이 현장에서는 더 효율적일 것이다. (손민중)
- 나도 스펙이 화려한 학생들이 과연 일을 잘 할까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가는 친구들을 보면 호주 버거킹에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스펙 형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학생들이 실무적인 능력이 있을까 의문이다. 청년 인턴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작위적인 업무배치가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구심이 든다.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이력서 한 줄은 늘어나지만 근본적인 청년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박미현)
- 나도 언론사 인턴을 뽑을 때, 서류상으로는 내가 배워야 할 정도로 훌륭하지만 실제로 보면 싱거워서 실망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요즘 청년들은 자신의 자아와 다른 취업용 자아를 만들어 낸다. 본성은 소심하고 내성적이지만, 취업용 자아는 대담하고 리더십 있게.. 심지어는 스터디를 통해서 필요한 자아를 배우고 습득한다. (고재열)
- 개인적으로 나중에 해보고 싶은 작업이 있는데 괴리되는 두 로드를 분석하는 것이다. 하나는 스펙로드로 스펙이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학생의 일과와 성향을 분석해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백수로드로 담담하게 취업 준비한 사람의 일과와 성향을 분석해보는 것이다. 이 두 로드의 괴리감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재열)

- 실제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과도한 포장을 하다 보니 벽에 부딪혔을 때 더 큰 좌절감을 느끼는 것 같다. 문제는 이것은 이 청년이 자라면 노년이 되고 또 아래 세대가 청년이 되는 것이므로 현재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권경우)
- 스펙을 쌓는 것도 한 지점을 위해서 가니까 다 획일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나는 학생들에게 한번 이력서를 빈 채로 내보라고 제안해본다. 그러면 면접관이 오히려 역 반응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권경우)
- 여성부에서 여대생대상으로 진로 연구를 했었는데, 세상에 직업은 1,000 여 개가 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 10가지 정도의 직업만 바라보고 준비한다. 하지만 노동시장 전체를 보면 그 10가지 직업은 전체 시장의 10%도 안 된다. 그에 반에 그 일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70-80%에 육박한다. 사회에서는 다양한 직업에 다양한 인력들이 필요한데, 준비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 큰 문제다. 즉, 수요, 공급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김기헌)
- 사실 인턴십이 어디서 나왔는지 거슬러 가보면, 교육 프로그램에서 나왔다. 직장체험, 인턴십, 간접체험 등 진로 교육차원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현재 인턴제는 교육적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 기업에서는 교육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그냥 밀어 넣어서 무슨 교육이 되는지 모르겠다. (김기헌)
- 요새는 등록금이 1년에 천 만원이다. 그것을 채우려면 좋은 임금을 받아야 하고, 좋은 임금을 주는 곳은 대기업이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몰리니까 경쟁하기 위해 스펙을 쌓아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든지 눈에 띄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재형)

4.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 및 쟁점

- 시장경제가 모든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쪽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궁금하다.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시장이나 시장경제가 청년실업, 소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혹시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장기적으로 보면 안 좋지만, 지금은 풍부한 노동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니 말이다. (이선재)
- 기업은 가해자 입장이다. 졸업 전후 시기에 중소기업에 들어갔을 때 늪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중소기업에서 착취수준의 노동환경이 그것이다. 그런 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암담해 지지만, 그렇다고 빠져 나오자니 그 시간이 붕 떠버려서 취업준비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비정규직의 늪에 계속 함몰되어 버린다. 기성세대는 일단 어디라도 들어가라 라고 말하지만, 막상 들어가면 비정규직의 굴레에 엉켜버리는 경우가 있다. (고재열)
- 아이들이 정보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대기업, 공무원 정도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지, 괜찮은 직업에 대한 정보수집에는 약하다. 널려있는 정보는 알지만 고급정보는 많이 없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일방적, 표준화된 기준으로만 한다.

물론 수요가 가혹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공급도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90가 중소기업. 대기업은 10% 이내이다. 상당수 일자리가 나쁘지만은 않고 규모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교육당국과도 관계가 많이 있다. 사회는 전혀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데 입시준비 하듯이 취업준비를 하다 보니까 일반화된 똑같은 준비를 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뛰어난 능력만 있어도 취업이 가능하지만 청년들은 그것을 모른다. 해결할 방법은 양쪽의 균형 잡힌 접근이다. (김기헌)

- 인권위에서는 요즘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이선재)
- 전통적으로 인권은 사회적 소수자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년과 관계되는 부분은 아동, 청소년이 많이 거론되어왔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청년 소외문제를 접근을 하는 게 쉽지는 않다. 복잡한 문제에 대한 쉬운 처방은 나오기 어렵다. (이명재)
- 지금의 인턴제는 세대 착취이자 자기 착취적인 방법으로 상당히 무책임한 정책이다. 차라리 돈을 뿌리는 게 나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권문제를 풀려고 할 때도, 비 당사자가 풀려고 하려면 문제가 많다. 청년들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므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교에는 학생회가 있고, 취업 후에는 노조가 있어서 그들에겐 최소적인 제도적인 테두리가 있지만, 실업청년들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관이 전혀 없다. (이명재)
-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기 위해 다자간 합의를 통한 사회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네스코 같은 사회적 기관에서 그런 시동을 걸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 문제도 교육문제라고 보고 인권위에서도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이것이 인권의 우선순위냐 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금액이 비싼 것도 있지만 대학의 장학제도였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무책임하다. 세대공백을 풀기 위한 청년 자체적인 노력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명재)
- 나는 KDI 에서 20년을 근무하면서 청년을 소외층 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국내 어느 부처도 청년문제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이유는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한위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청년소외라는 말을 듣고 너무 심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 문제가 참 큰문제구나 라고 생각했었다. 아마 많은 기성세대들이 그럴 것이다. (심상달)
- 기성세대의 책임에 대해 말했는데, 우리 세대는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하고 무언가를 일구어 왔다. 그런 것을 살아온 우리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심상달)
- 우리 사회는 macro하게 분석해서 미래를 바라 보지 않아왔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가 집을 사려면 집값이 이미 폭등한 상태이고, 기성세대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기성세대의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심상달)
- 지금 청년 세대들은 우리 세대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더 능력이 있다. 개인적으로

는 선진국처럼 국외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이미 국내는 포화상태여서 가치관은 무시한 채 경쟁만 치열해졌다. 해결책은 국외로 나가야 한다. (심상달)

- 청년소외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느냐에 태클을 걸어보고자 했다. 이에 이미 인권위 이명재팀장님께서쉽지않다고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사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본질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현재 청년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면적이다. 그러나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파편적으로 인식되어 단편적인 정부정책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선재)

2ndSession: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 건가?

- 지금과 같은 문제가 계속된다면 설사 경제위기가 해소된다고 해도, 미래의 청년 문제가 지속될 것이다. (이선재)
- 정권에 상관없이 정부나 시장이 고용에 관심이 있는지에 궁금하다. 고용 능력이 많은 경제영역, 농업 같은,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지 현재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나 정책적 가능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한 예로, 하버드 로스쿨은 졸업 후 공익 변호사 하겠다는 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 혜택을 준다. 말도 안 되는 일자리 남발하는 것 보다는 이런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원창수)
- 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목적이니까, 행정인턴에는 100만원을 주는데 창업인턴에게는 그 정도의 돈 안 준다. 중요한 프레임을 유네스코가 담당한다면 과거도 현재도 불행한 이 세대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간에 지체하고 있으면 다음의 시대에서 지금의 세대는 사회의 부담일 뿐이다. 사회적 구호가 미래에도 계속 될 순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당장의 현실에 임기응변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봐야 하지,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되는 데에 투자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미래에 도움이 되겠는가? (고재열)
- 휴먼 뉴딜이 발표 되었는데, 3가지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해외취업 장려, 또 하나는 인턴부분인데 올해는 바로 이 인턴 수요를 늘린 것이고, 올해 새로이 추가된 게 개인창업이다. (김기헌)
- 해외취업은 자본이동은 쉬우나 생활의 근간이 딸려있기 때문에 노동이동은 어려운 부분이다.. 과거에는 전문직 해외 취업을 많이 해왔는데, 간호, IT 등은 순간적으로 그 수요를 늘리기가 무척 어렵다. 더구나 최근 상황에서는 외국도 어려운데 우리나라 청년들을 누가 받겠는가 (김기헌)
- 창업은 우리나라의 거의 30%에 육박하는 자영업 비중의 문제와 직결된다. 창업을 해서 문을 닫는데 평균시간이 1년 5개월밖에 안 된다. 그런 상황에 우리 청년들을 창업에 밀어 넣는 것? 창업은 다 자영업이고, 인터넷을 이용한 소규모의 개인사업밖에 안 된다. 실제 이 자영업 층은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인

데, 여기에 청년층이 흡수된다면 얼마나 더 큰 문제가 나올지 걱정이다. 게다가 위험부담이 굉장히 큰 분야라 그 중에 몇 명이나 살아남을 것인가?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 주더라도 얼마나 남을까? (김기헌)

- 추가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뭔가는 답이 없다. 서두에 말했듯이 경기에 가장 민감한 층이 청년층이므로 경기가 좋아지면 사회적 노력 없이도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현재 15-24세 인구가 120만 명인데 2060년에는 6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인구는 줄어들게 될 전망이므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이 관건이다. (김기헌)
- 일본에서는 이미 잃어버린 세대를 겼었다. 한국도 그 초입단계이다. 이 문제를 청년의 문화적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 한 예로, 영국에서는 청년들에게 무료 연극티켓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문화적 지원을 해주는 것도 정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권경우)
- 유네스코 한위가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이 반갑다. 88만원 세대 서평을 보니까 정작 88만원 세대가 아니라 그 부모세대가 많이 썼더라. 아이의 장래가 책에 담겨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청년문제는 탈세대적인, 보편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인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88만원 세대라는 특징을 잡아냈다는 것에서 이슈화가 이루어졌을 듯. 문제를 문제로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명재)
- 우리 나라 노사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은 개별 노동의 관점에서는 치열하게 싸우지만 총 자본의 관점에서는 이해관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트라이크 홀더들인 청년들이 만나서 도덕적인 문제로의 접근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대의 문제라는 책임의식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논의의 장을 유네스코가 시동을 걸어주어야 할 것 같다. (이명재)
- 88만원은 좀 부정적이니까 88만원 세대를 대신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세대로의 전환할 수 있는 명칭을 공모할 계획이다. (이선재)

1. 청년세대의 소극적인 태도

- 언론은 문제제기는 잘하지만 대안은 싱겁다. 사례 보여주고, 잘 될 것이다 정도로 끝난다. 청년들이 우리문제로 풀어간다면 사회 아젠다로서의 우선순위가 올라갈 것이다. 훨씬 더 창의적인 방법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나는 청년세대가 정치적 응집력을 발휘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이 지경이지, 정말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 (고재열)
- 학생운동 진영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다. 하지만 과거 세대가 운동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엔 학점을 2.0점 받아도 대기업 취업이 가능했기 때문이

다. 지금은 학생들의 정치세력화나 목소리 낼 수 있는 구조 자체를 사회가 없애버려 놓고서는 왜 목소리 안내냐고 되묻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에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길이 정치적 변화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내 스펙을 쌓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다. (이재형)

- 정부가 최근 대졸초임을 깎는 조치를 한 데에도, 언론에서는 비난하지만 그 당사자들이 치고 나온 경우는 거의 없다. 한국대학생연합 정도가 반응을 보였을 뿐이다. 자신들의 피부에 닿는 문제인데 너무 조용했다. 무엇이든지 반대할 때 가장 큰 힘이 생기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에도 움직임이 없다면 다른 어떤 문제들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고재열)
- 청소년시기에 수면시간을 비교해보면 유럽보다 한국 학생들이 1시간을 덜 잔다. 최대점을 찍을 때는 17세인 대학진학시기에 가장 잠을 못 자고 있다. 반면 학습시간은 외국에 비해서 너무 길다. 모든 놀이와 관련 된 시간은 다 짧고, 유일하게 긴 것은 컴퓨터 게임 하는 시간이다. 또 청년기를 제외하고 가장 잠을 많이 자는 때는 대학생 때이지만, 취업 후 근로시간은 외국보다 한국이 훨씬 길고 수면시간은 가장 짧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가장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있다. 외국의 인식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김기헌)
- 정치세력화는 386의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기성세대는 지금 청년들에게 너희는 공부도 하고, 스펙도 쌓고, 그리고 우리처럼 연대하고 단합도 하라고 말한다. 우리 때는 그게 해결책이었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물론 연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둘 다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연대를 통한 성취나 기쁨을 얻지 못한 세대에게 단순하게 요구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김기헌)
- 사회적 기업을 이야기할 때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쉽다. Touch For Good 이란 사회적 기업을 시작한 이유는 취업준비를 했던 친구들이 모여서 “난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회사에서 이면지를 쓰자고 말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라는 생각을 했고, 회사와 나의 추구하는 방향이 같은 일을 찾다 보니 창업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경제가 어렵다 보니 사회적 기업의 이런 매력적인 부분은 가려지고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박미현)
- 지난 주, 순천에 가서 교육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좋은 직업을 찾는 것이 청년들의 문제뿐이냐 하는 논의가 있었다. 좋은 직업은 부모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자기 마을에 젊은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지만 자기 자식이 귀농하려는 것은 싫어한다. 괴리감이 느껴지는 현상이다. 청년포럼에서 일방적인 시각이나 요구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각의 차이점들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선재)
- 최근 KDI 사회적 기업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한 강의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

요한 힘은 새로운 패턴, 아이디어 이다. 그 아이디어는 좋은 기업가의 손에 있어야 한다. 세상을 선도하고 바꿔나가려는 비전을 갖는 momentum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이다. 최소한 담대한 희망을 가지는 풍토가 사회 내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변화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체인지 메이커가 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다. 이런 가치를 젊은이들에게 심어주지 못한 사회는 15년 후에 미래가 없다. (심상달)

- 현재는 경기문제가 전혀 아니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마음을 크게 품을 수 있는 모델들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이 패턴을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카피할 수 있는 어떤 롤모델이 필요하다. (심상달)
- 사회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공정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 세대 간 착취라는 용어사용은 조심해야 한다. 지금 문제는 사회적 착취이지 기성세대의 인격적인 착취나 결과적인 착취는 아니다. 화두를 던지는 데에는 효과적일지라도, 용어사용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 청년세대이면서 탈세대의 문제로 보고 고민을 해야 한다. 결국은 주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회적으로 수평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의 이익 또는 손해로 봐서는 안된다. (이명재)

2. 청년포럼 프로그램 주제 및 내용 제안

- 소외라는 표현이 대상자를 객체화하는 느낌이다. 청년들이 사실 봐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소외라기 보다는 청년들이 제기하는 타이틀이 더 맞는 것 같다. 어른들은 청년소외라는 단어를 보면 너희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괜히 문제를 조장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사회적 대화는 좋다. (김기헌)
- 긍정적, 희망에 관련된 의제를 넣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걸 포럼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이 있다면 이야기주길 바란다. (이선재)
- 회사는 사람이 없고, 학생들은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실업도 생계를 위해, 자아실현을 위해 구직하려는 유형이 있다. 많은 청년들이 생계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와 자아실현을 위해 구직을 하고 있다. 행복을 위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적성에 맞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찾는 게 문제해결이다. 대학에서 말로만 경력개발센터 하는데 전화해서 취업여부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 선배들과의 대화를 이끌어내어서 다양한 길 소개, 고급정보 제공, 네트워크 형성 등의 환경 등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김동희)
- 듣고 보니 행복을 위한 취업이라는 말이 다가온다. <행복한 취업을 위한 사회적 대화> 정도의 주제는 어떨까 싶다. (김기헌)
- 노동 이외의 환경, 조건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취업의 문제도 다르게 보인다. 이직의 원인은 취업 자체에만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묶여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히 맞아 떨어질 수는 없다. 어떤 대학에서는 회계학 원리를 기

업이 원한다고 모든 학생의 필수과목으로 넣었다고 하더라. 그건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획일화된 방향을 고쳐야 한다. (권경우)

- 순천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있다면, 나는 6년 동안 자취방에서 살았는데 그 돈이 3천 만원이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내 일에 만족을 하지만 완벽하게 충족 못한 것이 내 부모님들의 기대이다. 그래서인데 부모님들과의 대화하는 프로그램을 넣는 것은 어떨까 (박미현)
- 우리 기관 안에서 이야기 할 때만 해도 젊은 세대들은 냉소적인 경향이 있다. 나도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와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심상달)
- 오늘 준비회의를 통해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발견을 했고, 포럼의 방향을 잡았다. 포럼은 5월 15일로 예정이 되어있고, 봄에 마무리가 안된 논의들은 가을 포럼에서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선재)